



잡여·업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3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2호

<http://www.snua.or.kr>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璵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3-0755



선배의 정성어린 장학금 전달식장은 훈훈했다 (3면)

5천6백29명에 영광의 졸업장 (14면)



첫 언론인 대상 축하합니다 (4면)



맡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青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립 李慶衡, 金鍾勛,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裴智媛, 金南柱, 권고부장 金千鶴

관악춘추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의
숙원 중의 하나가 마침내 풀
렸다.

「매년 초가 되면 연세대·

고려대 등 각 대학별 언론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왜 유독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에게
는 이런 상이 없느냐는 통문 언론
인들의 오랜 불만이 말끔히 해소된
것이다.

2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이 열려 조순일
보 김대중이 기자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자 참석자
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비록 시상식장 입
구에서는 수상자의 업적과 공로를 일반적으로 폄하·
비방하는 파궤 침묵시위가 벌어져,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에 휩싸여 진통
을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

다. 이 때문에 제1회 대상 수상자가 비장한 수상소감
을 토로해 식장 분위기를 한동안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으나, 수상식장의 축제분위기와 숙연함이 한데 어
우러지면서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축하의 차원
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얹히고 설린 실타래를 우리

재하고, 한국 언론문화 창달과 나아가 건전한 사회발
전에 일조를 기호하겠다는 다짐이 묻어있는 대내외에
전명한 바 있다.

그렇다. 남북에 이어 동서로 갈라진 지역감정의 질
곡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대간에 保·革으
로 깊어져 가는 이념적 갈등은 더
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해소돼야 한
다. 우리 언론이 진실보다 못지 않
게 사회통합의 기능도 강조되는 만
큼, 2천5백여 명의 관악언론인 회
원들이 우리 사회에 차갑게 확산되는 이념적 냉전을
전개해 녹여버리는 용광로의 역할에 더 이상 머뭇거리
지 말고 서슴없이 나설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첫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국민
화합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활활 타오르게 지피는 불
씨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圭)

서울대 언론인 大賞의 참뜻

서울대 언론인들이 한 울 한 울씩 풀어나가는데 앞장
서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엿보였다.

지난 1년 전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靑岳언론인
회는 창립총회에서 「한국사회가 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만
큼 언론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강조된다」고 전

ARS 시스템 개설...후원금 모금

孫一根상임부회장 지원받아

본회는 지난 2월 21일 孫一根
상임부회장(51년 法大入·한국
일보 상임고문·경원대 겸임교
수)으로부터 기재를 기증받아
ARS 060시스템을 개설하고, 3
월 3일 개통을 완료했다.

ARS시스템을 이용한 동창회
발진기금 모금은 동문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액 다수의
후원인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후원제이다.

ARS후원금은 060-604-
0011번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및
개인용 휴대전화로도 후원이 가
능하며, 한 통화 5천원의 요율
이 발신자의 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과돼 동창회에 후원금으로 전
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후원금
은 동창회 장학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된다.

가존의 동창회 후원금은 수납
방법의 문제점 때문에 소수 동
문의 참여에 그친 점을 감안한
다면 이번 ARS시스템은 동창회
장학·합상화 사업을 위해 동문
들의 심시일번 청성을 모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제도라고 보

여진다.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
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새로 개
통된 ARS시스템을 통해 시정연회를
하고 있다.

동창회 활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甲申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9일 (금)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4년 3월 19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내 용 : ① 임원 개선
②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靑岳大賞」 시상
③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 사업계획 보고
④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 없음

※ 동창회 제145차·관악회 제89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
이전 오후 5시부터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동문칼럼

「寬容의 道」를 익히자

미국의 명문대학교 총장들이 몇 년 전 한
국을 방문했을 때, 국내 기자가 그들에게 배
우 흥미 있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극히 상
식적인 질문이었다. 질문 내용은 이런 것
이었다.

「오늘날 미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세계에서 「안보」 「경제」 면에서 최강
국이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 기자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가 인재를 양성함
에 있어서 대학, 특히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때 한 총장
이 아주 의미 있고 감동적인 답변을 해 주었
다.

「대하이란 흔히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라지
만 우리 미국의 대학에선 관용의 도를 가르
치고 있지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
들은 흔히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합하
나.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주장만 하지 말고 우선 상대방의 이야
기를 끝까지 잘 경청하는 일이며 그런 연후
에 상대방을 이해하며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
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한사람, 두 사람 이
어져 나간다면 그 사회는 화합하여 잘 조화
되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재를 잘 키운
다는 것은 사람, 그리고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에선 이와
같이 관용의 도를 대학과정에서 가르치고 있
는 것입니다」

이에 반듯 「우리 나라에서도 예 이와 같은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도덕과 윤리
에 관한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총장의 말은 모를
지기 나라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인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치는 말
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독선
적이고 이기적인 자제야말로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사
회발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임을 명각하
는 때가 많을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겸손과 친절도
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대
목이다. 관용의 도가 작게는 행복의 보금자
리인 한 가정내의 부부의 도리에서부터 크게
는 나라의 정치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현대

金 錫 營

(55년 法大卒)

대양중합사

회장,

칼럼니스트



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과제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관용의 도는 모든 사람
들에게 익혀야 할 진정한 삶의 한 측면이 돼
야 할 것이다.

관용의 의미는 상대방을 크게 용서한다는
것과 총정하게 안아준다는 뜻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내일에 사는 우리는 관용의 도를 익
히고 진실과 정직함 대화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행복한 삶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순간의 심수로 관용의 도를 간혹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성급한 사람일수록
관용을 배후에 아랑을 소홀히 하는 수가 있
는 법이다. 사람들은 관용의 참뜻을 미처 생
각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턱대고 경시함으로
써 자신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 주며 때가 있
다. 너그러운 관용의 점을 배워지 못한 것을
후회할 적엔 이미 때는 늦는 것이다.

관용이란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제
자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반사
적으로 관용의 결과는 자신에게 적지 않은
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일까.
참으로 관용의 도란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
말이 아니다. 과연 「세상 사는 모기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것이
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
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갈등, 그리고 분쟁들이
무엇보다도 관용의 도에서 벗어나면서 생겨
나는 그릇된 현상이 아니랴. 관용의 자세
는 그만큼 사람과의 대화에서 요긴한 자세인
을 다시금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관
용이란 사람을 이끌어 내는 마력이요, 보지
지 않는 커다란 덕목인 것이다.

노티나무 광장

얼마 전 KBS의 한 고위임원이 신입 사원 강연회에서 「KBS의 개혁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완성도가 낮아 사회 감응을 일으켰고 대중성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자평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1년 전 새 정부 출범 후 우려곡절 끝에 KBS에 취임한 鄭鍾株사장의 공영방송 1년 평가는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실패를 잃어 KBS를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를 실망시켰다. 프로그램으로 개혁의지를 보이겠다는 그의 포부는 「미디어 포커스」나 「인물연대」에 정치색이 짙은 주제와 출연진, 균형을 잃은 인물선정과 토론을 선보여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공영방송 제구실해줘야

사실 공영방송은 상업적 경쟁이 심화된 뉴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적인 공영방송의 정체성도 유지해야하고,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경쟁력도 살려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더구나 KBS는 공영성, 확보라는 기본과제에나 광고방송이라는 현실 때문에 1·2TV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방송은 편성의 독립성도 유지해야 하고 객관적인 진신정보는 물론, 다원적인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고급 프로그램의 개발로 차별성을 강조해야 한다. 몇 개의 어설픈 개혁 프로그램 손질로 공영방송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2TV는 지난 1년 동안 공영도 민영도 아닌 모호한 채널성격을 정리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대선 직후 KBS 참사기념일에서 盧武鉉대통령은 「방송이 없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겠는 거」 「대선 기간 중 도움을 받은 방송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공개적으로 감사표시를 했으니 그의 임명을 받은 새 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모로 화답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한다.

우리 국민이 KBS의 국내 언론과 미국 문제, 북한과 여야정치관련 보도를 민감하게 지켜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곧 대가를 충실히 공경하게 실시되고 방송 역시 공정



林炯斗
SBS 프로덕션
고문

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편파방송 시비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영국의 BBC가 공정보도 분석에 정부와 자주 갈등을 빚어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와 독립을 성취한 사례를 KBS는 타산 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본문 논설위원)

재학생 2백29명에 장학금 4억3천여만원

林회장 “참다운 엘리트 의식 갖기를”

본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株)는 지난 2월 20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4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모교 재학생 1백21명에게 2억6천6백80만3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본회 韓主席부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株의장은 식사 후 통해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뀔 수 없듯이 한번 서울大人은 영원한 서울大人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도덕적 용기와 참다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새 역사의 장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鄭憲泰총장을 대신해 鄭明熙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의 성취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특정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강조했다.

장학금 수여를 마친 후 姜憲枝(언어학과 박사 1년)양이 답사를 했으며, 모교 田鍾雄(상과 4년)군이 林惠林(기과과 3년)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빛노래」, 「그리운 금강산」을 축하노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金道和(문, 林光株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辛東一金漢波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鄭植圭·明泰鉉·安聖哲·朴明賢·鄭八道·金榮順이사, 李世賢관장이사부총장을 비롯해 鄭明熙부총장, 관악무역인회 曹章鉉회장,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 金鍾漢 前회장도 陪賓, 鄭大水 前한부총장 고문, 李元圭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성李道恒고문, 가천의대 尹成泰보



林光 특기장학회



牧村 5父子 특기장학회



金漢波·韓 榮 특기장학회



관악무역인회 결연장학회



수학과동창회 특기장학회

건대학원장, 郭東南변호사, 도화종합기술공사 文喜慶감사, 상영무역 李鍾基사장, 서울시 교원단체총연합회 朴熙正회장, 성지출판 洪樹都사장, 드림워즈 李義振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원)동창회가 재학생 1백8명에게 1억6천8백20만6천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4학년도 1학기 장학금은 총 2백29명에게 4억3천5백만9천원이 지급됐다.

특기장학금 수여

지난 2월 20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4학년도 1학기 일반장학금을 비롯한 특기·기금 및 결연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다.

영국테크놀로지코리아(회장 金柱津·54년 法大入)가 설립한 「西南 특기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金校榮(인류학과 3년)·趙仁國(컴퓨터공학과 3년)·金東均(기계항공공학과 4년)·金明俊(행정학과 석사 2년)·韓鍾俊(기계항공공학과 박사 1년)·任橋均(기계항공공학과 박사 1년)군, 金所炯(의공학과 2년)·金雅麟(디자인학과 3년)·尹水仙(재학과 석사 1년)양 등 9명이 등록금 전액 2천5백1만8천원을 받았다.

임포토전 林光株(52년 工大卒·본회 회장)회장이 설립한 「林光 특기장학금」으로 林회장은 모교 재학생 宋美英(생물교육과 4년)·李愛娜(의류학과 4년)·金恩姬(법학부 3년)양, 朴肅圭(지리교육과 1년)군에게 총 6백만원을 전달했다.

창치문화인회 金鍾漢(60년 齒大卒·본회 부회장)이시장과 아들 韓榮(85년 齒大卒·창치문화인회)등이 설립한 「金鍾漢·韓榮 특기장학금」을 통해 金이



사장은 모교 치의학과 林相敏(문과 1년)·李修珍(3년)양, 朴勝範(4년)·金學成(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천3백21만4천원을 전했다.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庫大卒·본회 부회장·관악회 이사)이시장이 설립한 「洪性大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洪이시장은 모교 재학생 鄭憲泰(의학과 4년)·崔敬榮(원자핵공학과 2년)·李寅載(기계항공공학과 4년)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6백만원을 수여했다.

신양문화재단 鄭植圭(52년 工大卒·관악회 이사)이시장이 설립한 「鄭植圭 특기장학금」으로 鄭이시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金南洙(재료공학과 4년)·金倫煥(응용화학부 4년)·姜碩誌(원자핵공학과 3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6백54만4천원을 전달했다.

한국구약대 金義順(4기 AMP·관악회 이사)이시장이 설립한 「金義順 특기장학금」을 통해 金이사는 이날 모교 재학생 朴奎宰(법학부 4년)·金鍾新(의학과 본과 2년)군, 李義善(서양학과 4년)양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6백37만5천원을 전달했으며, 수학과동창회(회장 金永煥)가 설립한 「수학과 특기장학금」으로 金회장은 이날 모교 수학과 4년 朴瑛道·千媛」양, 李曉慶군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3백만원을 전했다.

경원대 李吉女(57년 齒大卒·본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총장이 설립한 「李吉女 특기장학금」

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가천의대 尹成泰(65년 法大卒)보전대학원장이 모교 신입생 池義榮(인문학부 1년)·金柳那(사회교육계 1년)양에게 3백84만4천원, 홍인 鄭八道(1기 AIP·관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鄭八道·李憲泰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鄭회장은 모교 재학생 朴炳珠(경영학과 4년)양, 鄭順運(전기공학부 3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3백84만3천원을 지급했다.

상영무역 李鍾基(73년 齒大卒·관악회 이사)이시장이 설립한 「李鍾基 특기장학금」을 통해 이날 李시장은 모교 경영학과 趙希(3년)양과 趙敬敏(3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33만2천원을 수여했으며, 지진학과동창회(회장 蔣輝權)가 설립한 「蔣敬武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모교 재학생 盧廣政·申智源(지구환경과학부 4년)양 등 2명이 1백만원씩 총 2백만원을 받았다.

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福(60년 工大卒·관악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郭永福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도화종합기술공사 文喜慶감사가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모교 재학생 徐仁珍(전문학과 4년)·安雪淑(의학과 본과 3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5백19만6천원을 전달했으며, 삼양정수공업 張學淳(50년 工大卒)회장이 설립한 「張學淳 특기장학금」으로 공대 재학생 鄭明漢(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 2년)양,

(5면에 계속)

조선일보 金大中이사가 「언론인 大賞」 수상

「관객 언론인회」로 임인 관객언론인회(회장 安養勳)는 지난 2월 11일 오후 6시 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동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1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俞勝奎(89년 社會大卒)前 KBS 아나운서와 KBS 成世正(91년 社會大卒)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 전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만큼, 매일의 일상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 모교와 구성원들이 세계 속의 대학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도 주위의 동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심이 라도 가져다준다면 이 모임은



를 하고 같은 길을 걸어온 동문 언론인들이 주는 이 상이야말로 40여 년의 언론 인생에서 가장 값진 상」이라고 말했다.

(수상 소감 요지 참조)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은 건배

時旭서좌교수, 동양위성방송 TV 申東勳교수, 李濟峰 前중앙일보 상임고문, 玄昭燮 前연합뉴스·YTN 사장, 張俊峰 前정향신문 사장, 李敏在국회의원, 중앙일보 韓南圭수석부사장, 미디어리서치 鄭九錫회장, 金聖源 前내외경제신문 사장, 서울언론인클럽 尹宗熙회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朴武森소장, 조선일보 朴勝俊전문기자, MBC 鄭興賢사장 특보, KBS 朴慶姬전 아나운서, 李相起한국기자협회장 등 이 함께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좌로부터 劉義天·鄭雲燦동문, 조진필문 方又榮명예회장, 安養勳·林光洙·金大中·李吉女·金在淳·尹世榮·洪性大·南仲九동문.

관 합참 타오르는 불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하를 통해 「오늘 시상하게 될 제1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이 단순히 관객언론인회 동문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나라 언론문화의 창달을 위한 역사적 금자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자족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2천5백여 명의 전·현직 동문 언론인들이 힘을 합하여 한국의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새로운 창을 열고, 한국 언론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모교 鄭雲燦총장은 「이해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서 시대를 분석하고 대처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인 동문 여러분께서 모교가 「세계 Top 10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교가 처한 실상을 알리고, 권력과 지배를 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선일보 金大中(63년 法大卒)이사가 제1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을 수상했으며, 상패와 함께 본회에서 지원한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심사위원회 劉義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이어 수상자인 金大中동문은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같은 학교 울타리에서 공부

제의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 우리 서울대 동문 저널리스트들이 헌정 질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만찬이 끝난 뒤 金仁圭(73년 文理大卒)가사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安회장은 관객언론인회 발족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SBS 尹世榮회장을 비롯해 8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교 음대 金麟憲(84년 音大卒)교수와 제자인 SBS 鄭東萊(04년 音大卒)아나운서가 축하를,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판소리 공연기획자로 활동중인 林脈澤(75년 文理大卒)동문이 「이산, 저산, 「춘향가, 「농부」 등 흥겨운 우리 가락을 선보였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韓斗鎭·李吉女·孔大植·尹世榮·洪性大 부회장, 朴英俊감사, 許晝사무총장, 李世慶명예사무총장, 본보 李炯弼·南仲九·金好俊·安國正·李慶衡·金仁圭·姜天淵·朴聖姬는성위원, 金光燾명예대원동창회장, 모교 鄭雲燦총장, 언론정보학과 康廣斗 명예교수, 秋光永교수를 비롯해 조선일보 方又榮 명예회장, 대한언론인회 李貞錫 회장, 인천일보 劉德福회장, 연합뉴스 張永燮사장, 한국경제신문 崔提明사장, CBS 李廷濤사장,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南

金大中이사가 수상 소감 (요지)

상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은 서로를 잘 아는 동료들끼리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주는 상, 그것도 특히 같은 학교 울타리에서 공부를 했다는 배경과 함께 주는 상은 상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이 저한테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래 있다보니가 현역으로서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닌가, 또 우연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글을 써온 기자에게 이 상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을 고맙게 받고 즐거워야 하는데, 지금의 마음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황량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들은 말과 글로써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감하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과 글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갈등과 대립이 이렇게 몰려올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있는 동안 우리 언론인 기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황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문기사를 택한 이유는 아주 진부하지만 무관의 제왕이라는 그 글자 때문에 지장을 겪었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문기사를 할수록 영향력을 독점한다고 여깁니다. 언론은 그 게임의 본질이 영향력을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상호간의 노력, 건전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영향력을 많이 갖느냐. 그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상은 제가 애당초 무관의 제왕이라는 글자에 현혹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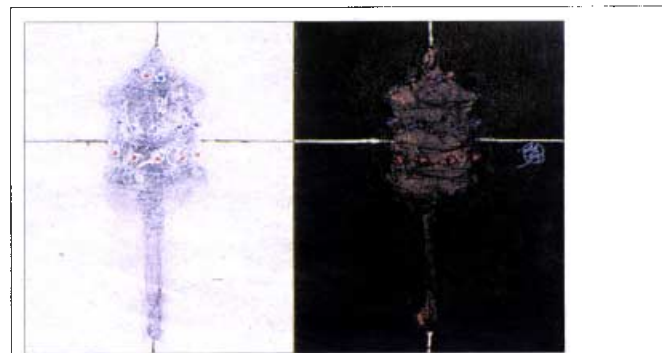
그저 말과 글이 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상대방과 패대기 치는, 사회 원본선 없이 자신과 견해가 다를 것에 대해서는 가치없이 부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언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론의 문제는 언론 내부의 분열과 갈등, 거기에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력하로만 싸워왔었습니다. 사실 언론은 권도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와버렸습니. 사실 여기에 계산 많은 동료 여러분을 가운데 남산이라는 데 틀려서 저를 싸워 주고, 물먹을 배를 들고 시청에 걸을 받으려 다니다가 저는 민주의 비적대가 침몰한다는 기사를 왜 우리 선배기자들이 썼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독립군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검열 앞에서 독립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비적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비판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 자체로서 저는 이 상의 깊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객언론인회 발전 지원금 출연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회 林光洙회장(5천만원)
△SBS 尹世榮회장(5천만원)
△경원대 李吉女총장(2천만원)
△LG 구조조정부 鄭相蘭부사장(1천만원)
△SK텔레콤 表文洙사장(1천만원)
△휴맥스 卜大奎사장(5백만원)
△미리예세 자산운용 朴煥柱회장(2천5백만원)
△NHN 李海珍사장(2백50만원)
△스노우리츠 朴振煥회장(2백50만원). (表)



禹相浩作

「Karma-一念(黑, 白)」

<작가박력>

- ▲83년 모교 미술 서양화과 졸업
- ▲89년 독점 중앙미술학원 대학원 졸업(학위 전공)
- ▲갤러리 창 초대전 등 개인전 4회
- ▲서울대 내 제 천천 등 난제전 30여 회
- ▲01년 「新美術年史」 비평제작
- ▲03년 「창화-그 회화적 표현」 출간
- ▲현재 서울대 강사, 한국고교협회 회원

의과대학

친목 바둑대회서 퀴즈왕 뽑아



의과대학동문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2월 8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강당에서 姜信浩(52년卒)·沈英輔(61년卒)·何權益(63년卒)·李根植(64년卒)·尹正哲(65년卒)·李容國(65년卒)·李炳勳(66년卒)·李昇哲(68년卒)·朴商弘(70년卒)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친목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A조 吳卿白(70년卒) 등문, B조 朴性九(66

년卒) 등문, C조 李相完(61년卒) 등문이 각각 우승했으며, 劉明植(77년卒) 등문과 朴性九(66년卒) 등문이 2004년 春春棋聖 칭호를 부여받았다.

한편 이날 홀을 돌리기 위해 열린 바둑 퀴즈대회에서 俞建(69년卒)·金吳特(70년卒)·盧光國(80년卒)·陳泰燾(84년卒) 등문이 퀴즈왕을 차지하며 푸집한 상품을 받았다.

최고경영자과정

趙政男·朴在甲 등문 大賞 수상



최고경영자과정동문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1월 2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등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및 제3회 '서울대 AMP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래를 거듭할수록 '서울대 AMP 대상'이 권위와 영예의 표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창회를 비롯한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SK텔레콤 趙政男(67년 工大卒·45기 AMP) 부회장과 국립암센터 朴在甲(73년 醫大卒·9기 HPM·51기 AMP·54기 ACAI) 원장이 제3회 '서울대 AMP 대상'을 수상했다.

건축학과

신임 회장에 夫人珍 등문 선출

건축학과동문회(회장 李水熙)는 지난 2월 2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등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신임 회장에 夫人珍(63년卒·진아건축 대

표) 등문을 선출했다.

成百齡공대동문회장의 격려사, 모교 金宇杰 명예교수의 건배사, 金光鉉회장의 모교 현황 보고에 이어 지난 한해동안 개최된 주요 행사를 슬라이드를 통해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윤리교육과

새 회장에 朴贊政 등문



국민윤리교육과동문회(회장 徐圭善)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모교 蔡教勳 명예교수, 朴孝謙과장, 鄭世九·全奎永·李錫竹 교수 등 등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모교 朴贊政(77년 人文大卒) 교수(사진)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이어 회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정우(92년卒) 등문, 모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인정(95년卒)·김은수(00년卒) 등문, 석사학위를 취득한 盧慶浩(84년卒)·송준수(00년卒)·김신아(01년卒)·김홍대(01년卒)·송만호(04년 大學院卒) 등문에게 학위기념패를 전했다.

공과대학

최우수 졸업생 시상

공과대학동문회(회장 成百齡)는 지난 2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산학강의실에서 모교 韓民九 학장, 각 학과(부)장,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학년도 최우수 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成회장의 인사말과 韓학장의 격려사에 이어진 시상식에서 19명의 최우수 졸업생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전자시계를 전달했다.

이날 선정된 최우수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기계항공공학부 김상경·박형재·윤여별, 응용화학부 신재준·조이라, 전기·컴퓨터공학부 과재호·박세웅·박인선, 컴퓨터공학부 박해우, 재료공학부 김미소·송주하·장경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영·나진환·윤성현, 건축학과 최희재, 산업공학과 과재호, 원자핵공학과 김희숙, 조선해양공학과 하승현.

이순테니스회

4월 5일 정기모임

이순테니스회(회장 申東敏)는 오는 4월 5일 오전 8시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41회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연락처 : 576-7750)

- 비로 잡습니다 -

지난호(제311호) 7면에 소개된 정지·외교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기사의 제목 중 신임 회장 "金鉤"를 "金駒"로 비로 잡습니다.

ROTC 동문회

신임 회장에 梁在炫 등문 추대



작년부터 모교 吳成民 학군단장, 孫炳奎·洪宗浩 梁在炫 등문, ROTC중앙회 車仁泰 회장, 鄭助英·洪淳興 등문.

ROTC 동문회(회장 洪宗浩)는 지난 2월 9일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본회 林光洙 회장, 許 肅사부총장을 비롯해 1백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올해 관악연원회가 시상하는 '서울대 언론인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조성일표 金大中(63년 法大卒)이사기자, 최근 예견한 洪淳興 前2군사령관 등 많은 ROTC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ROTC 동문들이 자주국방과 사회 발전을 위해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기를 23만 서울대인과 함께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제8대 회장에 梁在炫(69년 工大卒·충남건국사이사부소견원 회장)부회장, 감사에 金正奎(80년 師大卒·인터우본 이사장)등문이 선출됐다.

신임 梁在炫회장은 "의미는 재미에 우선할 수 없다"며 "사업을 하는 동남에게는 사업 면에서, 학술을 연구하는 동문에게는 학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해양정책최고과정

다양한 코너 갖춘 홈페이지 준비



해양정책최고과정동문회(회장 南正明)는 지난 2월 2일 백문동 식당에서 손원수(3기)부회장, 정용현(1기)사무총장, 서규영(1기)감사, 김충선(2기)총무, 김태환(1기)·김평공(1기)·최이현(2기)·정두영(3기)·최이기(3기)·김영환(4기) 등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2004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이어 안전 심의를 통해 5회 중 모교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는 동창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고, 각 기별 소식 및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코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진로·증진·환상화를 위해 수시로 골프대회를 가지고, 등산모임도 매년 2회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의과대학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수여

수의과대학동문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2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급물식당에서 모교 李友漢(73년卒)학장, 沈光東(63년卒)·林水一(64년卒)·金振球(67년卒)부회장, 金熙應(57년卒)·朴根植(57년卒)감사, 金壽中(66년卒)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모임을 가졌다.

李회장과 李文漢학장의 인사

말에 이어 장학재단 사무국장에 모교 劉漢相(82년卒)교수를 선임했다.

한편 5월에는 지난 3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소외의실에서 200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이날 모교 재학생 김상욱(분과 4년)·서승현(대학원통합과정 1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총 6백55만9천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表)

정치·외교학과동창회 金 駒 회장

산업·동창회
인 박

AFB 교우회 金奎台 회장

“동호회 늘려 젊은 동문 참여 유도”

지난 1월 15일 열린 정치·외교학과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金 駒(63년 文壇大卒·국동상공 대표)동문이 선출됐다. 이에 金동문을 만나 동창회 소개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다.

— 그동안 동창회 활동을 소개한다면.

「지난 96년 정치학과와 외교학과 동창회가 통합한 이래 회원이 3천5백여 명 정도 됩니다. 두 학과 동창회가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학과와 외교학과가 한 뿌리였고 학문 성격이 유사해 상호보완할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죠. 주요활동은 매년 1천만원 이상 학과 지원(장학금, 학생 단체활동), 동창회보 발행(계간), 분기별 초찬토론회, 그밖에 친목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 골프 등의 취미 동호회나 지역 동호회는 아직 없지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 젊은 동문들의 참여율은.

「다른 동창회와 마찬가지로 지조한 편입니다. 현실상 30대 동문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40대 동문들을 흡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에 많은 숫자를 포함시켜 참여를 유도하고, 기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50대 동문 가운데 회장이 나온다면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운영의 어려운 점은.

「전임 회장님들이 터무니 없이 높여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정당에 계신 동문들이 많아 통합에 어려움이 많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은 하는데, 동창회에 외서는 자신의 정당, 일에 관련된 발언은 금하고 순수한 선후배 사이로 만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오랫동안 동창회에 봉사해온 것으로 아는데.

「동창회에 참여한지 20년 정도 된 것 같고 부회장직을 가장 오래 맡아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창회 일을 해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안타까울 때도 많았어요. 정부나 국회 요직에 많은 동문들이 계신데, 부정부패를 막지는 못할 뿐 더러 왜 나쁜 일에 가담해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 향후 활동 계획은.

「안으로는 기금을 늘리는 일과 밖으로는 깨끗한 나라 만들기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남은 기금이 3억3천만원 정도인데, 동창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금액이 몇 년 안에 모이긴 어렵겠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가가 부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동문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정기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金회장은 지난 20년간 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정치학과와 외교학과 동창회 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생활과학대학 패션산업회교경영자과정(AFB) 교우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해 초대 회장에 金奎台(1기 AFB·이원물산 대표)동문을 선출했다. 이에 金회장을 만나 교우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 교우회 소개를.

「AFB 교우회는 지난해 12월 창립해 올해가 사업원년이 됩니다. 현재 1기부터 3기까지 총 1백10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오는 5월에 4기생을 모집합니다. 대한복식디자인협회 김종원(1기·베디앙트 대표)회장, 부산패션협회 김영수(1기·세명어패럴 대표)회장 등 국내 의류업계를 이끄는 많은 분들이 이 과정 출신입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개성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졸업후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등 13개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외에 로타리클럽, ROTC 중앙회, 강남 재향군인회 등 다양한 단체가 꽤 많았죠. 거절하는 스타일이 못되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서 어떤 직책을 맡아달라고 하면 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친목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아 활동해왔고 지금도 몇 개 단체에서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 여러 전문대학원을 다닌 이유는.

「이원물산이라는 작은 단주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좋은 직원을 시의적절하게 뽑거나 아니면 CEO가 항상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회사라는 한계 때문에 좋은 인재를 뽑기 어려워 후자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과제가 생길 때마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 조직운영에 대한 남다른 노후가 있다면.

「가장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시스템이란 일원조직, 사업계획, 소모임조직, 회보발행 등을 통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장은 위로 물려나 회원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마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AFB 교우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족하여 그 달에 회보를 발행하고 서울대 패션경영인 대상을 제정, 시상했습니다. 앞으로 가족동반 해외연수, 체육대회 등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개성이 강한 분들을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참여를 이끌겠습니다. 총동창회 동문들도 격려해주시고, 우리 또한 패션쇼 등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애써겠습니다.」

金회장은 현재 고려대 교우회 강남지부 회장,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우회 회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南)

“디지털시대 한국방송의 메카로 자리잡겠다”

동문록 찾아서

대한골프협회·SBS 尹世榮회장

SBS 尹世榮회장이 최근 대한골프협회 회장에 취임한데 이어 서울 목동 SBS 신사옥 이전 기념식에서 「방송의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 주목을 끌고 있다. 尹회장은 모교 법대 동문(1961년 졸업)으로 SBS 회장이자 서울학술장학재단과 SBS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기업가로서의 사회활동에 힘쓰는 우리시대의 대표적 기업인이며 언론인인 동시에 체육인이다. 골프는 핸드캡 16에 출신원을 세 번이나 한 막강한 실력이고, 노래는 잘 못하지만 송대관의 「해물탕」을 즐겨 부른다는 尹회장을 만나 「산아은 길, 인생 회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등을 들어왔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골프협회 회장 취임, 새사옥 이전 등 축하드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시작을 보니 중정식 로비가 시원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건물을 접하다 보니 정말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특별히 어떤 대목에 신경쓰셨는지, 또 건축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의 기본은 선, 면, 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가치가 조화를 이뤄야 미려하면서도 실용적인 건물이 됩니다. 그러자면 고도의 기술력과 정교함이 필요하지요. 거꾸집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구요. 태영의 건설기술이 정상에 오른데다 디지털시대의 방송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정성을 다한 만큼 최고의 건물이라 자부합니다. 서울시 광역 불하 받았는데 마침 방송회관과 기독교방송, 스포츠조선 등이 인근에 있어 미디어타운이 됐습니다.

— 동문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회장님이 걸어오신 길, 삶의 지표, 인생철학 등에 대해 궁금해 할 듯합니다. 강연도 참원이 고창이신데, 서울에는 언제 오셨는지요.

「교향은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오지리입니다. 철원편마군치인데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은 전형적인 한국 풍경을 이뤘지요. 그런데 광복 후 공산 치하가 되자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던 선친께서 교향과 농토를 팔고 월남하신지요. 1946년 한겨울, 온 가족이 보리를 이고 지고 팔광 열 한탄장을 곁에서 건너편 기역이 아직도 생생한데, 출가한 누이가 심든 경지도 토해내 잡사며물다 한학자이신 큰 외삼촌이 계시던 양으로 옮겨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로 온 건 6·23에 피난지인 부산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랬겠지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가난하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어서 정말이지 어떻게 견뎌냈나 싶은 정도입니다.

— 가족관계를 설명해주십시오. 부모님께서 특별히 중시하신 게 있으셨는지.

「부모님은 소박한 농민으로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그

대답: 본모 차정환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려다보니 늘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모이든 더 구한다」는 얘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90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면서도 기품있고 당당하셨는데 막대한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늘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바로 밑 동생인 외삼촌이 일제 때 와세다 대학을 나와 동아일보 사회부장과 대한통운 사장을 지낸 임봉순씨고, 그분의 처인 외숙모가 추계학원을 설립하신 공신덕씨입니다. 외삼촌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하신, 의지가 강한 분이었는데, 어머니도 비슷한 성격이셨습니다.

—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군에 있을 때였는데 처(下金玉)는 당시 서울대 치대를 나와 치과사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촌 형수인 주영숙씨(현 추계학원 이사장 임형빈씨의 처)가 처와

저금·썸짓돈 모아 37세에 태영개발 창업 제2차장 선언...방송경영 전문가에 밀릴 터

대한동거여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뒤 호감을 가졌지만 좋아한다는 말은 못하고 사랑니를 치료해 달라며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사랑니의 뿌리가 깊어 뽑는데 몹시 힘들었는데 모양인데 저를 좋아해 때는 줄 앓고 있던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을 했다 1962년에 결혼했습니다.

— 사모님께서는 계속 전력을 하셨는지요. 어떤 일을 하신지 알려주세요.

「결혼 후 그만두었습니다. 큰 딸(수연)은 출가해 전업주부로 남편 대초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열심입니다. 막내인 둘째 딸(지연)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일욕심도 많은 편이지요. 이화여대 영문학과 나와 석사위와 미국에서 댕뎅 매니저먼트로 석사학위를 받고 신라호텔에서 잠시 근무했어요. 미국 공인회계사(CPA) 자격도 따구요. 지금은 태영CC를 관리하는 태영테크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아 여성 기업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석민)은 서울대 공대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부자 동문인 셈이지요. 학부와 석사 과정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SBS 대표로 정보통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버리는 손주 중에도 서울대생이 나와 3대를 잇는 동문 가족이 됐으면 합니다.

— 자녀들에게 강조하시는 인생철학이

있다면.

「원칙에 충실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을 자주 예가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사회 모두 원칙과 도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正道)보다 사도(邪道), 원칙보다 사술(詐術)이 살아간다면 일찍 죽어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정도와 원칙, 도덕이 보답받는다는 게 확고한 소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역사사지라는 생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정도와 원칙, 정작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밑거름을 갖게 된 때는 서론과 시절 김원규 교장선생님의 영향도 컸습니다. 「깨끗하고 부지런하라, 어디서든 없어서 안될 사람이 되라는 말은 사춘기 시절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전국의 영재들이 모여든 서울고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



들과 처남들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구요. 국회의원 선거 때면 처가가 李의원의 선거운동본부가 될 정도였지요. 李의원께서 6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국왕위에 배속되었는데, 군을 잘 아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 제가 발탁된 겁니다. 군에 있을 때 국방부장관 전속부관을 거쳐 제대직전엔 육군참모총장실에 근무했거든요. 당시 배운 건 좋은 사람들과 한번 쌓은 인연을 잘 유지하면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한다는 건 훌륭한 덕목이자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李의원은 공화당 경북 담원원장과 담두위원을 지을 중진으로 많은 인맥을 갖고 계셔서 덕분에 저도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 37세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독립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는지요. 사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李東寧의원 비서관을 8년이상 했습니다. 李의원이 8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는 퇴로 선언하면서 함께 그만뒀지요. 李東寧의원이 정경에서 삼주개발 이사로 1년 정도 근무하다 비서관 시절 알게 된 분의 추천으로 마흥선실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옮겼습니다. 3년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나도 하면 되겠다」하는 자신감을 갖게 돼 10여 년간 지축한 돈과 아내가 허리피를 풀러준 모은 썸짓돈까지 끌어모아 창업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태영개발주식회사를 창업한 게 1973년 11월이었습니. 창업일 앞서 얘기처럼 좋은 사람들과 맺은 인연을 최선을 다해 오래 유지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태영의 사훈을 「지성, 참조, 인화」로 정한 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정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담자는 뜻이었지요.

난 것도 인생의 큰 행복이었지요.

— 군에 입대해 논산에서 훈련받다 장교시험을 보셨는데, 통역장교를 지내셨습니까.

「법대 2학년용 마치고 입대했는데 때마침 통역장교 모집공고에 낚일래 응시했지요. 영어도 배우고 리더십도 키우고 민생문제도 해결하자 싶었어요. 월남한 뒤 계속 고학하자 하고 있었는데 장교생활을 하면 학비 조달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지요. 요즘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군에 있으면서 3~4학년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고 시험만 치렀지요. 당시 서울법대는 학생과에 출석부를 두고 본인인 도장을 찍도록 했는데 친구들을 회유도 하고 형(?)도 해서 도장을 찍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호기롭게 시험이 때를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통역장교 7기로 임관했는데 미군 부대에 배치됐으면 하면 회담과 담판 훈련의 2군단 군단장실에 배속됐다 5·16 직후 李東寧 국방부장관실로 발령받았어요. 입단 때 1등을 했던 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요.

— 李東寧의원 비서관을 지내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는지요. 당시 배운 점과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 게 있다면 무엇이있지요.

「李東寧의원의 교양이 경북 문경인데 처기도 문경이었습니. 李의원의 자제

— SBS는 오래 전부터 골프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는데요. 중계방송도 일찍 시작했구요. 골프로 주목하게 된 동기이기도 있었는지요.

「제가 낡았다 빨리 골프를 시작했어요. 1969년인가 제가 모시신 李東寧(이동녕)의 예를 몰러받아 지금은 없어진 서울능동의 서울CC에서 머리를 웅얼었으니 벌써 35년이나 됐네요. 덕분에 선진국에선 골프가 스포츠이자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걸 진작 알았지요. 방송과 스포츠는 사실 뗄 수 없는 동반자관계구요. 미국의 경우 미식축구와 골프, 야구, 농구의 인기는 방송중계와 관련이 높습니다. 방송사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 많은 광고를 얻구요」

「그래서 SBS 출범 때부터 골프 중계를 원형편성에 넣었지요. 방송과 골프계 모두 환영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했고 지금까지 성공적이었고요 확신합니다. 현재는 물러났지만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의 초대 총재를 맡아 짧은 기간에 한국 농구의 프로화를 이루고, KBL이 프로농구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지요. 지난해 10월 평양의 유적 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 때 SBS가 국내 방송사들 처음 대규모 중계진을 보내 전국에 생중계할 수 있었던 것도 방송과 스포츠의 관계를 증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 대한골프협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골프장 중개사 문제 해결과 훈련장 건립을 골목으로 내거셨는데요.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체념도 갖고 있고 골프장도 운영하다 보니 우리 나라 골프산업의 문제점이 뭔지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싶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골프산업 4핵만명에 달하는데 골프장은 퍼블릭을 합쳐 1백11개밖에 되지 않으니 부진난은 심화되고 그린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매년 10만명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것도 골프장 중개사에 신규 골프장 건설을 어렵게 해 수익불균형이 심화된 탓입니다. 정부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문화관광부를 비롯 관련부처를 적극 설득해 개선하도록 힘을 작정입니다. 훈련장 건립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만큼 버지장이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박세리, 최경주 등을 배출한 골프강국에 협회 등 폭넓은 6천명 이상인 나라에 대표훈련장 하나 없는 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 출신원을 하면 흔히 재수가 좋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출신원은 솔직히 '문7 기3'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출신원을 할 수 있는 본인이라면 다른 문도 좋겠지요.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출신원을 3번이나 했으니 골프론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서로 8만회에선 정확히 맞아 들어갔고 두 번은 골프가 들어갔는데 보편한 전 출신원을 했을 땐 유채석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의도하건대라도 찾아 이워지고 싶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반이요. 사업도 학제 없이 승승장구한 때였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기때 많이 청구요. 가끔 처서 풍랑상만 불똥 형운을 맞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노도 젊을 때여서 가능하지 않잖나 싶어요」

— 골프가 인생에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요.

「얼마 전 존 웨리 전수가 미국 PGA 규약인비메이셔널에서 9년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년의 아픈, 앓을 중독, 네 번째 부인의 마약거래와 도박 혐의 등 술한 좌절을 겪은 전수가 모든 시련을 이기고 벗어난 재기한 거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새 인생인데 빨리 전수는 그 어려운 길 해내며 많은 팬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골프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었지요」

「인생도 골프도 과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꼭 거리를 내려고 잔뜩 힘을 들이고, 꼭 이기려 마음먹으면 먹음수족 안되는 게 골프입니다. 인생길에도 굽이굽이 고비가 있듯 골프에도 성패를 가늠할 고비가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정지하고도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정면돌파하

1백42여원을 하술 언론 문화예술 분야 인사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20억원 가량 지원할 예정입니다. SBS재단의 규모는 현재 3백50억원입니다」

— 하버드대에도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SBS문화재단과 하버드대,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3자 협약에 따라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백만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등은 하버드대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지원을 위한 겁니다. 이 기금을 지원받는 교수들은 「윤세영교수직」이라는 이름으로 올 가을부터 강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에 10만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하버드대를 다닌 인연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한국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의도였지요」



구력 35년·핸디 16·출신원 3번 실력 막강 “관련규제 철폐·훈련장 건립이 최대 과제”

자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지해야 한다는 말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나 골프나 자신과 세상에 정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서울대에 계속해서 장학금과 건물 신축기금을 기부하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최근에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련원문화에도 5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셨지요.

「서울대엔 모교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차원에서 미력이나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대 낙산장학회에 10여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했고 「근대 법학 100주년 기념관」과 「법학 연구동」 전액에 7억원을 냈습니다. 법대에서 「법학연구론」 6층 국제화상 회의실을 「서암헌」로 명명해준 큰 큰 영광이요. 관련원 문화재단 기금 출연도 같은 맥락입니다」

— 서암학술재단과 SBS문화재단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기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에도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서암학술재단과 SBS문화재단은 그 신념을 구체화시킨 거죠. 서암학술재단은 1989년 1억 1천만원으로 조성, 지금까지 40여 개 단체, 1천3백여 명에게 총 1백2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기금 출연을 늘려 현재 2백34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SBS문화재단은 방송사업에 따른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려 1993년 3억원으로 설립, 지금까지

— 서암(瑞巖)이라는 호는 어떻게 지으셨는지요.

「흔히 한학에 조예가 깊은 유망한 분이 지으신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실은 제 처가 지어줬습니다. 처가 서예를 열심히 해 한문에 조예가 있고, 꿈모전 입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서로운 서자가 바위 암자로 「상서로운 바위」라는 뜻입니다. 뜻이 좋아서인지 제 인생이 좋은 분들과의 좋은 인연 속에 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된 듯해 호에 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고향이 강원도인 점에 착안해 그냥 감자마우라는 뜻 아니냐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 SBS 신년사에서 「디지털화, 국제화, 경영성 강화」를 강조하고 「고령화 경제프로그램」 발신의 원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 방송사 너무나 당연한 현안이자 절박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SBS가 전 인적원의 담반율로 지은 목동 신사옥은 디지털시대 한국 방송의 매카로 자리잡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쟁은 시대적 화두입니다. 대통령도 암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주소구요. 방송사로서 피상적인 경제상황보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달성하려면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 지 고민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이지요. 시대적 과업인 경제발전에서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SBS는 올해 고품격 경제방송의 주역을

자임할 겁니다」

— 최근 새 사옥으로 이전하신 뒤 제2창사를 신인원하면서 SBS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이사회에만 관여하고 방송사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한국적 방송철학의 모범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창립 후 14년간 대주이사직을 맡았지만 사장은 3년밖에 안했지요. 절정 한 고로 뛸는데 발표가 늦은 셈이지요」

— SBS의 경우 창립 초기부터 장애인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최근엔 다소 뜸한 듯합니다. SBS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갖고 계시지요.

「창립 초 「사랑의 징검다리」라는 장애인 관련프로그램을 주1회 고정편성했지요. 지금도 광익방송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생각엔 변함 없습니다. 시청율이나 광고주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신경써야겠지요. 무한경쟁 시대에 독자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하고 유지하느냐는 방송사 경영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재미와 흥미,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한 순간에 형성되거나 개선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긴 안목으로 실천해갈지나 토론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인, 체육인, 언론인 등 다양한 일을 해오셨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기업인은 이윤을 추구하고, 체육인은 정정당당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언론인은 공익을 우선합니다.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하지만 어떤 분야든 건 강한 상식을 기초로 원칙을 지켜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왔습니다」

— 서울대 동문으로 살아오시면서 좋았던 점, 혹은 불만하셨던 점.

「불만했던 건 없었고,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은 언제나 강한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지요. 사회 각 분야에서 서울대 동문이 포진해 있어 음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도 큰 혜택이었다고 보구요. 하지만 평생을 견지해온 정직과 원칙, 자존심이야 말로 서울대 출신으로서 기업경영에 헌신하고 사회발전에서 기여하도록 한 원천입니다」

— 서울대 동문, 특히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SBS에 들어와 많은 서울대 동문 후학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맡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기 그지없지요. 하지만 서울대 출신들은 대학원 최고 학위를 나왔다는 데 자족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경쟁적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며 우뚝한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50년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였던 서울대 동문들이 건반하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 계속 활약하려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 국제경제와 국제 정치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외국어 실력을 열심히 닦았으면 합니다」

— 비비신대 긴 시간동안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대학

부러움 찾아서

음악대학 동창회

음악박사과정 신설 ... 교육 내실 다져

격년제 교향악단 연주회로 화합 도모

1945년 12월 25일, 당시 미군정청 학무부의 전문학교령에 따라 3년제 경성음악학교가 설립됐으며, 이듬해인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예술대학 음악학부에 편입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수준의 음악전문교육기관이 출범하게 됐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지도급 인사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수준의 음악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음악학부는 6·25전쟁으로 부산에서 구성됐던 전 시연합대학 체제에서 작곡과 5명, 성악과 5명, 기악과 3명 등 모두 13명의 첫

교려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를 임하게 된다.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2001년에는 독일에서, 이듬해에는 한국에서 합동연주회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리고 동경예술대학 음악학부와도 교류도 아울러 추진하여 2002년 11월 우리 대학의 오페라 정기공연에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학생들을 참가시켰고 이번 3월에는 모교 재학생들이 동경을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세계적 명문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고 실현의 날은 멀지 않다.

글 : **金 婁(64년 普大卒)** 모교 음악대학

1950년대 중반에 창립된 음악대학 동창회는 원자가 재학중이던 1950년대 말 초대 회장인 **吳鎭明(48년卒)** 동문과 회의를 함께 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1945년 이 땅에 광복이 찾아오자 **玄濟明** 박사가 주동이 된 음악가들은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위해 남산 아와 음악당 자리에 경성음악학교를 설립했으며, 학박사가 교장으로 취임했다.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가 개교하자 기꺼이 예술대학으로 흡수시켜 학박사는 초대 음악장을 맡으며 음악대학의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초창기의 변화 과정을 거쳐 음악대학 동창회도 1948년부터 1950년대

지 예술대학 전문부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예술대학 음악학부가 생기면서 대부분 편입해 1951년부터 1953년 졸업까지는 음악학부,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4회 졸업부터는 음악대학 졸업생이 동창회원으로 입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유대 1회는 1951년 음악학부 1회 졸업부터 시작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초창기 동창회는 그리 활발히 움직이지 못했으며 장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초대 **吳鎭明** 회장을부터 2대 **崔祥錄(51년卒)** 동문, 3대 **金昌九(52년卒)** 동문, 4대 **曹祥錄** 동문, 5대 **金昌九** 동문까지는 임기 없이 회장을 연임하며 동창회를 위해 수

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6대 **李成萬(51년卒)** 동문은 거쳐 1987년 7대 **鄭佐賢(57년卒)** 동문이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3년 임기제를 시행해 왔다.

특히 1987년 **鄭佐賢** 동문이



모교 음악대학 건물.



제7회 SNU PHIL(좌로부터) 許 瑔·張翼龍·韓相宇·申秀貞·朴柱亨·林光洙·張允慶·孫一棟·朴世熙·孔大權(동문).

예를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음악대학은 1953년 예술대학에서 독립하여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게 됐으며, 1954년 보다 더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위해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1959년에는 우리 나라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예선 결과 국내 최초로 국악과가 문을 열게 됐는데 이는 실로 대단한 의미가 담긴 일이라 할 수 있다.

1976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면모를 일신하게 된 음악대학은 그 해에 동양음악연구소, 1989년 서양음악연구소 그리고 1994년 오페라연구소를 각각 설립하여 동·서양의 음악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길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1989년에는 인문대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서양음악학 및 한국음악학 박사과정(Ph.D.), 이어 사범대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음악교육학 박사과정(Ph.D.)을 신설해 국내에서 음악학 제반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기능을 아울러 담당하게 됐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음악대학의 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악심기 분야에서 석사과정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 결과 2003년 음악박사(DMA)과정을 신설해 한국을 넘어 세계적 명문으로 거듭날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다.

세계의 내로라 하는 음악대학들로부터 교류제의를 이미 받고 있던 음악대학은 새로운 딜레마를 맞이하면서 실험성을

■ 연 혁

- 1945년 12월 경성음악학교 설립
- 1946년 8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설립 (경성음악학교는 서울대학교로 편입)
- 1953년 4월 예술대학 음악부가 음악대학으로 개편
- 1954년 4월 석사과정 신설
- 1959년 4월 국악과 신설
- 1976년 3월 관악캠퍼스로 예술관으로 이전
- 1976년 5월 동양음악연구소 설립
- 1989년 3월 서양음악연구소 설립
- 1989년 3월 인문대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음악학 박사과정 신설(Ph.D., 서양음악학 및 한국음악학)
- 1994년 12월 오페라연구소 설립
- 2003년 9월 음악박사(DMA)과정 신설

■ 연 혁

- 1985년 회원명부 발간
- 1987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총동창회관 206호 입주
- 1988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소식지 제1호 창간, 현재 12호 발간됨
- 1989년 8월 29일 제1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1991년 8월 31일 제2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1993년 8월 30일 제3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1996년 8월 26일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 1998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창회보 제1호 창간, 현재 제9호 발간(1년에 2회)
- 1999년 9월 19일 제5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2001년 9월 10일 제6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2003년 11월 4일 제7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2004년 2월 음악대학 54회 졸업생 배출, 2004년도 장학금 수여

회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이 마포에 건립되면서 동창회 사무실도 동창회관에 입주했으며, 동창회 명부를 발간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鄭佐賢** 동문이 7~8대 회장을 연임한 것 이외에는 9대 **李誠(51년卒)** 동문, 10대 **李南洙(53년卒)** 동문, 11대 **金正吉(62년卒)** 동문에 이르기까지 3년 단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1989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SNU PHIL)는 동창회의 가장 큰 사업으로, 연주회 수익금으로 매년 학부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는 동문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음악계에서 동문들의 비중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이 막대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어 영남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에 동창회 홈페이지(sunmusic.com)를 개설, 온라인을 통해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도 2004년부터는 졸업 40주년과 30주년이 되는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축제로 변형하여 모교 사랑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인 자유 활동에 강하 음악인들 있어서 동창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좋은 결과와 있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 : **韓相宇(62년 普大卒·음악평론가)** 회장

동문기자 제책추월

「속도의 뒷」에 걸린 기자들의 슬픔

상황1.

지난해 4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서울 상도동 집. 「다음주부터 정치부에서 일하게 됐다」는 인사 발령 소식을 들은 아내가 이런 말을 건넸다. 「유명한 사람을 많이 만나겠네」 「농반진반」의 예기었고, 거기에 약간의 부러움도 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비전문인」 아내가 생각하는 정치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냥 웃어 넘겼다.

그후 아내의 말처럼 「유명한 사람」인 정치인과 정부 각료 등을 많이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코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부 생활은 육체적으로 보면 「넉넉히 땀 보았다」였으며, 정신적으로 보면 「적성에 맞지 않는 팀」에 오른 느낌인 뿐이었다. 매일 낮, 쓰고 싶지 않은 기사를 쓰면서 마음이 아팠고, 밤엔 땀에 젖은 와이셔츠를 벗으며 아내에 미안함을 느꼈다.

11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 아내의 말은 그래서 다름과 같은 것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 고생 돼야 하겠네」

상황2.

지난해 4월 말 저녁, 민주당사 인근

의 한 음식점.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인 당시 「신주류」 인사들이 「정치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신당창당을 선언했다. 당시엔 그 선언이 나를 얼마나 파국하게 할 줄 알지 못했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신·구주류 양측은 하루가 멀다하고 모임과 회의를 하면서 세 잡결과 공방을 계속했다. 나중에는 지망을 순회하며 세 대결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4개월여, 결국 9월에야 신주류가 광당하면서 민주당 내 신·구주류가 갈등은 끝이 났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서로 「남남」이 됐다.

4개월은 한쪽의 입장에서 「창당을 위한 사고」가, 다른 쪽에서 보면 「분열과 배신」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힘들었겠지만, 기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한 정치부 선배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자조했다. 「그래도 「정치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목표로 하는 당을 만드는 데 일조했잖아」

상황3.

지난 3월 말 어느 날 저녁, 민주당 본당 과정을 함께 취재했던 정치부 후배

金容湫

(95년 人文大卒)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



H와 맥주를 마셨다. 분당 이후 그 녀석과 나의 행로는 같았다. 그는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갔고, 나는 청와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평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녀석인데, 그 즈음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래서 「신상에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구나」 생각만 할뿐, 비해서 챙길 여력이 없었다. H는 그날 자신의 고민을 털어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돌아오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직업이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 기자직을 그만두려 한다」 또 「슬로하게(Slow, 천천히) 살고 싶다」고도 했다.

나는 그 녀석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글을 쓰는 지금, 휴대폰은 쉴 틈 없이 울린다. 「...와 관련한 청와대 반응을 따라」 「...라는 설이 있인데 확인해봐라」 회사의 주문이었다.

상황4.

2월 말 어느 날 저녁, 편집국 정치부 사무실. 평소처럼 출입처의 일과가 끝나고 이 신문 저 신문을 살펴보며 혹시 빠진 기사는 없는지 살펴본다. 신문지면 이곳저곳에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정치개혁」이라는 낱말이 쏟아져 달려온다. 흥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이다. 정치적 당파를 떠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잠깐 떠올려보기도 한다.

한지만 개인적 상상은 잠시. 파국한 일상에 사람들이 그러워한다. 그리고 그 사이 「노림」을 찾아 떠난 H의 얼굴이 보이기도 한다. 「속도의 뒷」에 걸린 기자들의 슬픈 일상,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한편에선 새로 입사한 수습 기자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회재 사교는 이렇게 취재하고, 이제 포인팅이 「스프레드시트」는 이렇게 쓰고, 박스는 이렇게...」 그들의 눈은 빛나고, 손은 재빠르다. 기자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속도의 뒷」으로 빨려오는 그들. 그들이 있기에 내일 또다시 신문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정치개혁의 희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히는 것일까.

즐기는 스포츠문화 자리잡아야

우리 나라에는 프로 스포츠가 참 많다.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남녀 프로 농구, 남녀 프로 골프, 그리고 씨름까지... 그런데 장사가 참 안된다.

프로 야구의 열기가 사들였던 것은 물론이고, 2002년 월드컵 이후 반짝했던 프로 축구 열풍도 사라진 지 오래다. 프로 농구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후 위 4개 구단은 정말 파탄만 날리고 있다. 여자 프로 농구는 승위에 관계없이 손님이 없다. 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왜 그럴까? 일단 관중의 「눈」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텔레비전 라디오만 누르면 세계 최정상급의 경기를 마음껏 볼 수 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 프로 축구의 골 장면은 정말 흥분하게 짜여 있다. 미국 프로 야구와 프로 농구는 묘기에 가까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과거 국내 정권은 「정치적 이유」에서 프로 종목을 만들었다. 때때로 시와 프로 구단을 맡았던 기업들은 이제 회사 홍보를 위해 구단을 운영한다. 관중보다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사 한 줄이라도 나와야 기업 소유주가 체면을 둘 수 있다. 재미있는 경기보다는 「성적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저런 행각들이 벌어진다.

또 있다.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3개 이상의 프로 종목이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되지 않은, 스포츠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우리 나라에 너무 많은 프로 종목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프로 스포츠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생겼다는 태생적 한계와 기업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프로 스포츠의 그늘도 심각하다. 프로 선수들은 이른바 「학교 체육」에서 배출된 체육 엘리트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듯 없이 사라져야 한다. 주전 선수 구상으로 불과하니까, 운동을 그만두면 할 일이 없다고 한다. 학교 코치 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선수들의 말이다.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한 선수들의 사정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할 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는데, 막노동 말고 할 게 있다고 하소연한다. 「엘리트 학교 체육」이 빚어낸 현실이다. 「머리가 없는 선수」를 양산한 엘리트 체육은 폭력 정권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요즘 유도를 배우고 있다. 꼭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얼마 전 용기를 내서 유도장을 찾았다. 아직 머쳐지는 게 겁나지 않지만 참 흥미롭다. 녀름도 재미있고, 얼어치기, 보탕겨치기, 허벅다리 우리기 등 기술을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다. 운동량이 많아 건강도 좋아졌

全永祐

(93년 社會大卒)

MBC 스포츠취재부 기자



다. 이런 아침이나 내가 맡은 종목 경기가 없는 날 저녁 퇴근 뒤에 유도장을 찾는다.

유도를 배우다니가 부상이 마칠 공석인 유도 담당 기자 자리를 맡았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좁게 방송이나 현장에서 경기를 보면, 전에 보이지 않던 유도의 각종 기술이 눈에 속속 들어온다.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전에 없던 입이다. 그 날 관심 있던 차원에서, 유도 팬으로 변했다.

한국 프로 바둑이 왜 강한가? 즐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저변이 넓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삼촌과 조카가 자음을 겨룬다. 즐겁다. 몰리인 바둑판에 숨은

고수도 많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강의 프로 바둑 기사들이 즐비하게 배출되고, 그들이 겨루는 대국은 화제요 관심거리다.

프로 스포츠는 스포츠의 꽃이다. 그 토대는 이미주어 스포츠가 재광해야 한다.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뛰어난 선수가 배출돼야 한다.

미치 바둑처럼, 청소년들은 시험 접수나 진학이 아니라 전장을 위해 스포츠를 즐겨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스포츠 교육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 가운데 배출된 학교 체육 엘리트들이 지역 사회로 퍼져들어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까운 자원이 사당되고 있다.

체계적으로 배운 운동은 건전한 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도 선물한다. 축구나 야구 같은 그라운드 종목이 아닌 운동은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권위가 되고, 팬으로 변한다. 팬이 많으면 좋은 프로 선수도 많이 나온다. 지역마다 유소년 클럽과 프로 구단, 그리고 열성 팬들을 보유한 유럽 축구 시스템이 좋은 사례다.

전년에 과외만 시키지 말고 운동한 가치를 배우게 하는 것은 어떻게. 휴일에 함께 프로 경기장을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가족이 함께 즐길 스포츠가 있다면 건 행복만 일이다. 그래서 프로 스포츠는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다. 난 유도를 배우다. 힘이 많은 한 계속 할 생각이다.

서울대 가족

李正浩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부친·형·2녀1남·사촌 등 13명이 동문

“자녀에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

『家傳忠孝 世守仁敬』

세종대왕이 쓴 글로 유명한 이 글귀는 현재까지도 많은 가정에서 家訓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귀의 원본이 아직도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인 李正浩(60년 商大卒) 동문의 1대 손이 세종대왕으로부터 받은 글로서, 무려 5백50년 동안 그 자손들이 이 가훈을 지켜왔다고 한다.

李正浩동문 가족엔 오래된 가훈만큼이나 많은 서울대 동문을 배출했다. 부친 李鍾乾(34년 水原高農卒·前경기공업전문학교 교장) 동문을 비롯해 형 李寅浩(57년 農大卒·前공주대 산업대학 교수) 동문, 매형 尹星熙(54년 藥大卒)·매제 田光鉉(61년 文理大卒·前단국대 교수) 동문, 사촌인 李趾浩(55년 法大卒)·李源浩(65년 法大卒·한국화학산업협회 회장) 동문이 모교 출신이다.

또 李正浩동문의 장녀 李相敬(95년 農大卒) 동문과 큰사위 李洙榮(90년 農大卒) 동문은 현재 미국싱턴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차녀 李靜政(95년 家政大卒·프로퍼선전비네트워크 상근이사) 동문과 작은 사위 崔宇鎮(94년 醫大卒·인제대 외대 신경외과 교수) 동문, 장남 李相憲(97년 工大卒·美에틀린타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Environmental Engineering 박사과정) 동문과 며느리 金銀映(98년 生活科學大卒·美The Art of Institute of Atlanta·인테리어 과정) 동문이 모두 모교를 졸업하는 쾌거를 이뤘다.

李正浩동문은 부친 李鍾乾동문에 대해 『부친께서는 평생을 교육계에 봉사하시면서 남을 도와줄지언정 의지하지 말고, 정직·성실·겸소하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

다. 또 분
에 맞는 생
환을 하고,
자녀에게
좋은 습관
과 자립하
는 정신·능
력을 기르
라고 항상
강조했년
분』이라고
소개한다.

6·25 전
정 후 피해
해진 나라
의 교육을
살리기 위

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학교를 설립
했던 부친 李鍾乾동문 덕분에(?)에 李正浩
동문은 초등학교 다섯 곳, 중학교를 세
곳이나 다닌 이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부친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한국경제
를 복구시키는데 보람이 될 수 있는 분
야에서 활동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이
들이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나라에 봉사해야겠다는 결
심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한편 李正浩동문의 세 자녀들이 모두
유망계 자란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李正浩동문 내외의 남다른 교
육관에 있다.

『무엇이 되라, 꿈을 가져라 등 옆에서
강요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부인과 저
는 단지 세상에서 많은 인생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 그곳에서 학교를
다닌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도 배운 열에
를 잊지 않도록 아침에 영어 테이프와



뒷줄 좌로부터 金銀映·李相憲·崔宇鎮·李靜政·李洙榮·李相敬·李正浩동문.
한 명 건너 李鍾乾동문.

TV 프로그램용 항상 들어왔으며, 축구,
탁구, 테니스를 좋아했던 저는 아이들에
게 직접 테니스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 입학 후, 방학 때마다 어학 연
수나 배낭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
지 자녀들이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고,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더군요.

장녀 李相敬동문과 사위 李洙榮동문
내외의 본업은 필치과병원 의사이다. 대
학 동기들과 함께 설립한 이 병원에서는
선진 치의학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의
사들을 2년간 교대로 미국 연구원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李洙榮동문은 미국에
처음 유학·이민한 한국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기가 대단하다고.

어릴 적부터 미적 감각이 뛰어났던 차
녀 李靜政동문 역시 대학 동기들과 함께
패션정보업체를 설립, 뛰어난 비즈니스
마인드로 국내 3대 패션정보업체 중 하
나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해외 출장이

부친

李鍾乾(34년 水原高農卒)

형

李寅浩(57년 農大卒)

매형

尹星熙(54년 藥大卒)

매제

田光鉉(61년 文理大卒)

사촌

李趾浩(55년 法大卒)

李源浩(65년 法大卒)

장녀

李相敬(95년 農大卒)

차녀

李靜政(95년 家政大卒)

장남

李相憲(97년 工大卒)

사위

李洙榮(90년 農大卒)

崔宇鎮(94년 醫大卒)

며느리

金銀映(98년 生活科學大卒)

갔을 李靜政동문은 서울백병원에서 최후
질환 전문의로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
는 남편 崔宇鎮동문과 많은 시간을 가지
기 위해 독록하게도 함께 해외 여행을
다니는 편이라고.

모교 재하시절, SNUP 오케스트라 단
원으로 활동했던 장녀 李相敬동문은 첼
로, 차녀 李靜政동문은 바이올린, 장남
李相憲동문은 플루트 등 각각 연주하기도
했다. 여기 며느리 金銀映동문이 바이올
린 단원으로 들어오면서 李相憲동문과는
자연스레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李相憲
동문이 예쁜타자로 유학하게 되면서 金
銀映동문은 美Parson's school 장학생으
로 선발됐지만 가정을 위해 같은 지역
인테리어 전문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세계의 무대에서
그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
을 찾으라고 당부합니다. 저 역시 부인
과 함께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李正浩동문은 부친 李鍾乾동문이 자녀들
의 성장과정을 수십 권의 노트에 담았던
것처럼 가족들을 위한 회고록을 쓸 예
정이라고 덧붙였다. (表)

모교 소식

제58회 학위수여식

학사 3천3백48명·석사 1천7백97명·박사 4백84명

鄭총장 “21세기에 맞는 패러다임 만들어야”



모교(총장 鄭義雄)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200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교 林光洙회장, 孫一振상무회장, 孔大植부회장, 許慶世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鄭義雄·李賢宰·趙完主·鮮于仲德·李基俊 전임 총장과 鄭義雄총장, 鄭熙熙부총장, John Clemens 국제백신연구소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철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학사 4백84명, 석사 1천7백97명, 학사 3천3백48명 등 총 5천6백2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鄭義雄총장은 석사를 통해 “교단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양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을 자부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열린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를 원천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식·문화적·윤리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우리 모두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졸업생들도 시대의 변화를 지시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 온 세계로 시야를 넓혀 21세기의 초석이 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교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지식정보화의 불길에 급속도로 밀려오는 따라 조금씩 변형되고 그 사회의 내용과 질적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념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산업의 공동화가 깊어지면서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된 ‘혼돈’의 시대에 부딪혀 갈수록 선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에서 멸시받으는 일당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선량아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또 『모교 義雄·文信교수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해 전 세계 생명 과학기술의 고지 위에 역사적인 금자탑을 세운 나라와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좋은 것은 환경 속에서 10여 년간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정신력과 인내가 오늘날의 개가를 올릴 수 있었음을 명심하여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동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사·축사』 참조)

이어 음대 성악과 朴美惠교수가 축사를 전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치대를 수석 졸업한 최은정 동문이 인사를 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자연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박성준 동문이 평점 4.26을 얻어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고령 졸업생은 81년에 입학, 학생 운동에 뛰어들면서 순탄하지 못한 학업생활을 겪으며 특례재입학과 일반재입학을 거쳐 의학의 화로를 졸업한 윤영주 동문이며, 최연소 졸업생은 2001년 입학해 3년만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박윤수 동문이다. 외국인으로서는 학사 7명, 석사 55명, 박사 18명이 학위를 받았다.

도 졸업생 가운데 김성진(자연대 화학부)·조혜정(사대 교육학과) 등 3명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제3회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상”에 학업성과와 사회봉사

활동에서 각각 탁월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단과대학별 졸업생에 대한 총장과 동창회회장 시상도 거행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김지원·백승환 △사회대: 박지연·유지성 △자연대: 박성준
△의대: 장경숙 △경제대: 김성원·박민준 △공대: 윤성환·박세웅 △농생명: 김민진·성소현 △의대: 오연정·강은영 △법대: 강진우·박림준 △사대: 이동찬·김지현 △생물대: 서정혜·정성원 △수학과: 김경진·이후성 △약대: 윤태현·엄기윤 △음대: 이민아·정홍태 △의대: 조정진·송경두 △지대: 최은정·이은주

통장학 신입회원

5천6백29명 늘어

2003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6일 거행돼 학사 3천3백48명, 석사 1천7백97명, 박사 4백84명, 석·박사포함 11명 등 모두 5천6백29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통장학 총 회원수는 29만1천6백35명(총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와 통장회 회원수는 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분	2월 졸업	총회원
인문대 학	218	9,754
사회과학대 학	228	11,803
자연대 학	91	3,443
간호대학 학	65	3,106
정경대 학	169	5,543
공과대 학	813	36,813
농생명대 학	259	18,849
조리과학대 학	36	9,731
수리과학대 학	95	4,497
법과대 학	243	14,662
사범대 학	93	23,895
상과대 학	—	6,723
수의과대 학	35	1,997
학대 학	66	5,717
음악대 학	138	6,376
외과대 학	181	10,260
과대 학	94	5,562
대 학	2,008	69,442
경제대학 원	—	701
교육대학 원	—	653
국제대학 원	23	54
보건대학 원	49	2,761
사범대학 원	—	508
신용대학 원	—	284
행정대학 원	51	3,909
통장대학 원	70	1,977
총계	5,629	291,635
신입회원	—	287,499
총회원	—	13,338
(단기과정 포함)	586	10,888
총계	—	291,635



鄭義雄총장 졸업식사

진행하는 졸업생 여러분, 바로 오늘 졸업의 영예에 있기까지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학부모님 및 가족 여러분, 모든 힘을 기울여 학생을 지도하신 교직원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학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林光洙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는 전임 총장님, John Clemens 국제백신연구소장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신 동문 및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예로운 학위를 받고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을 축하하고 그 장도를 격려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지난 40여 년간 우리 한국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 속에서 배출된 뛰어난 인재들이었으며,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서울대학교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 방면에서 합력하는 수단이 많은 인재들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주춤거리며 혼란에 휩싸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고, 사회는 여러 세력 사이의 갈등이 날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도 특유의 활력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극도의 부진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미래를 바로 잡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위한 인재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먼 길을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한 인재가 되라고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홀로 뻗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멸실상부한 세계화의 시대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란 어느 크고 강한 나라가 강제하는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편협한 국가주의를 벗어날 것과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지구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새로운 윤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단일민족국가의 정체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세계 공동체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대학교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양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을 자부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열린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를 원천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식·문화적·윤리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졸업생들도 시대의 변화를 지시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온 세계로 시야를 넓혀 21세기의 초석이 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권의 우물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활용시키지 말고, 세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세계를 이끄는 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진행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는 여러분이 이 지구촌의 건국자가 될 것이라는 우리 모두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졸업장은 국가의 민족 그리고 세계에 봉기시켰다는 약속을 지킬 때 우리 서울대학교는 참된 의미의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곧 봄입니다. 교정에 울려 퍼진 봄의 교향악은 바로 여러분의 새 출발을 경하하는 축하가 될 것입니다. 새봄처럼 싱그러움 여러분의 장래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넓은 세계와 먼 장래를 향해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林光洙당회장 축사



천재하는 후에 졸업생 여러분!

이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여 년의 세월을 同國同樂하고, 진리 탐구의 정신과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정든 관악캠퍼스를 떠나게 됩니다. 캠퍼스를 떠나자마자 여러분은 엄청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밀려옴에 따라 조금만 방심해도 그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마는 '변화와 경쟁'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념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산업의 공동화가 깊어지면서 도덕적 권위마저 실추된 '혼돈'의 시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그들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신바람인으로 나아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열사봉광하는 일당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선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뉴턴(Newton)은 '진리의大海는 모든 것이 미발견인 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지의 대해를 항해하노라면, 때로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며, 잔잔한 햇빛이 비치는 평화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취적 도전정신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은 '불가능한 일이란 어려운 일 에 비해 단지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명은 전제의 靈感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수백번, 수천번의 시종착을 거쳐 탄생했으며, 그의 발명은 그야말로 99%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모교 黃禹錫·文信容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 전세계 생명 과학기술의 고지 위에 역사적인 금자탑을 세워 나라와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작지 않은 환경 속에서 10여 년간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은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가 오늘의 개가를 올릴 수 있었음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동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은 동창회의 신입회원이 됩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모교를 떠나온 23만 동문들은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대인들 조국에 대한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관개, 재계, 재계, 언론계 등에 기라성같은 동문들이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울대인의 기세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서울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학시절에 못 다한 모교에의 애정을 동창회를 통해 마음껏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국적이 바뀌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교의 창학정신인 'VERITAS LUX MEA - 진리는 나의 빛'을 가슴에 안고 사회에 나아가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굳건한 서울대인으로 살아 나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鄭雲樞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대학발전의 협찬 의지를 받들어 계속해서 'Top 10대학', 약진하는 서울대학교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모교 발전의 의지를 한데 모읍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朴東奎교수 등 15명 정년퇴임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모교 鄭雲樞총장님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5명의 교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朴東奎(국어국문학)교수, 李龍光(철학)교수, 鄭柱三(생물과학)교수, 金珠鍊(지구환경과학)교수, 李廣九(응용화학)교수, 鄭秀瓚(재료공학)교수, 金浩鼎(응용제약화학)교수, 禹保命(산림자원학)교수, 文在梧(생물자원공학)교수, 守守彦(디자인학)교수, 嚴泰丁(조선)교수, 張鳳麟(의학)교수, 金英珠(치의학)교수, 李勝雨(치의학)교수, 李瑞伯(보건학)교수.

정년퇴임한 교수들은 퇴임 후에도 모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朴東奎교수는 퇴임 후에도 모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朴東奎교수는 퇴임 후에도 모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黃禹錫·文信容교수팀

세계 최초 배아줄기세포 배양



黃禹錫 교수



文信容 교수

모교 수의과대학 黃禹錫교수팀은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文信容교수팀과 함께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3일 오전 4시) 미국 사에틀에서 개최된 미국 국가과학진흥회(AAAS) 연례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한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확립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마련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연구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의 난자 및 체세포를 제체해 복제배아를 만들고, 장기간 배양을 통해 체세포재조합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복제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

할 경우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이제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이언스의 과학편집진은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연구진은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및 세계 각국의 윤리규정을 참고해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연구양식을 정한 후 한양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승인 받아 자발적으로 제공한 10여 명으로부터 총 2백42개의 정상난자를 얻었다. 인간난자는 쉽게 파열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난자의 투명대에 구멍을 만들고 임력을 가해 쉽게 탈락난자를 만들고 난자세포공자와 동일한 난자세포를 탐색한 난

자에 주입해 핵이식 난자를 만든 후, 전기자극을 가해 세포융합을 유도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서튼 교수는 이와 같은 독특한 실험 방법과 난자세포공자와 동일한 난자세포를 핵이식을 세포포로 이용한 점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번 과정으로 완성된 복제배아줄기세포는 배상제 형성과 실험동물의 생체 내 이식 실험 결과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체배양 과정에서 이들 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했으며, 이와 같은 제체배양과 복제된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이미 국제적으로 출현했다.

2003년 4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팀이 원숭이실험에서 '4-세포기' 이상의 복제배아로 만드는 것은 중생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에서는 복제배아줄기세포의 수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과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2월 12일 사이언스지 인터넷 판에 게재됐고 미국 국가과학진흥회 연례회의에서 연구발표에 이어 연구책임자인 黃교수가 특별강연을 했다.

원장 등을 역임했다.

간호대 徐浩장은 67년 모교 간호대 간호학과를 졸업,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해 간호대 부학장, 상인간호학회장, 한국재활간호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생활과학대 黃浩장은 74년 모교 가정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 애초지대에 식품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생활과학대 부학장 등을 지냈다.

사범대 학장에 尹正一교수 취임
간호대 학장에 徐文子교수 선임
생활과학대 학장에 黃仁京교수

지난 2월 24일 사범대학 학장에 교육학과 尹正一교수가 선임됐다. 또 간호대학 학장에 徐文子교수, 생활과학대 학장에 黃仁京교수가 각각 취임했다.

사대尹浩장은 66년 모교 사대 교육학과를 졸업, 애틀리노

이대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애틀리노이대 사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대통령 교육개혁심의회 기획조정실장무임장 등을 지냈으며, 85년 모교에 부임해 교육연구소장, 사범대 부설 교육행정연구



尹正一 학장



徐文子 학장



黃仁京 학장

2학기부터 여성학 강의 강화
「여성학 미학」 등 4과목 신설

모교는 지난 2월 8일 을 2학기부터 학부 과정에 4개의 여성학 강의를 신설해 여성학 강의의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과목은 「한국문화와 여성」 「여성학 미학」 「성리학의 이해」 「세수철리와 성별」 등, 등이다.

또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에서도 이번 학기부터 「여성주의

인식론」 「성과 사회통제」 「페미니즘 이론」 「양적 연구방법」 등이 개설되며 학부 4학년생도 이 강의를 들으며 학점이 인정된다.

규모에 비해 기간 여성학 연구와 강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모교가 이처럼 여성학을 강화함에 따라 타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

칠 전망이다.

그동안 모교에서는 「여성사」 「종교와 여성」 「여성과 사회」 등 3개의 여성학 강의가 진행돼 왔으며 지난해 봄에 첫 여교수가 임명되면서 「범여성학」과 목이 신설된 바 있다.

鄭雲九교수부처장은 「여성학은 사회적 주제인 데다 학생들의 요구로 강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여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며, 남학생들에게도 균형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동문기고

과학강국 이끄는 우리 대학 연구능력

최근 언론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우리 대학의 萬萬壽(수의대)·文信宮(의대)교수가 세계 최초로 사람 체세포의 난자만으로 인간배아 출가세포(인체의 모든 장기로 발전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일입니다.

이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사이의 핵(유전물질) 이식을 통해 얻어낸 출가세포의 배양기술 개발로서, 이에 대해 세계적인 언론들도 한국 과학자들이 세계 생명공학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대단한 쾌거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결과가 각박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나라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그 역할을 우리 대학이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얼마 전 과학논문핵심(SCI) 게재 논문수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우리 나라의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해 세계 13위를 차지했고, 서울대학교는 세계 34위라고 발표했다.

SCI 게재 논문수만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전세계의 과학기술저널 중 3권8백여 종 이상을 선정한 뒤 여기에 실리는

문물을 분석한 자료다. 물론 SCI 등재 여부가 연구의 질 또는 연구성과를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SCI 게재 논문수는 한 국가의 연구 수준의 측정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각 나라의 대표 대학끼리만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2만여 개 대학을 상대로 측정된 것이어서 이 같은 실적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세계 40위 내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4개 대학과 서울대학교만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일본에서 발견되는 SCI 관련 잡지(77권)가 우리 나라(77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서울대가 차지한 세계 34위는 일본의 그것과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중 과학 분야의 경우 SCI 논문수는 이미 세계 10위권 이내에 진입했다. 또한 자연과학 분야의 수월성을 가늠하는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논문인용 지수를 살펴보면 물리학상은 5천5백8편, 화학상은 4천8백71편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대 내에도 1천편 이상 인용지수를 지닌 학자도 16명이나 힘을 갈안할 때, 통계적으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전임 교원수는 2001

朴鍾根

(73년 工大卒)

모교 연구처장



년 1천4백74명에서 2003년 1천5백65명으로 증가되었고, 연구시설은 2001년 19만4백98㎡에서 2003년 25만2천1백43㎡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개선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학 행정조직을 수요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운영할 목적으로 2003년 학칙개정을 통해 연구처의 조직을 1과(연구지원과) 체제에서 2과(연구진흥과, 연구지원과) 체제로 개편했으며, 연구부처장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목표인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

었고, 연구비 지원 기회·개발업무 및 연구 인프라 관리 등을 더욱 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수주실적 증가율이 매년 10%를 상회하는 등 연구비 투자가 상승하고 있으나, 그 투자액은 외국 일부 대학과 비교할 때 미국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바 이러한 양적 미교를 통해서만 분명히 외국에 비해 우리 대학의 연구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한 것은 채 20년이 안되는 데도, 어느 해에 투자한 액수에 비해 해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학문의 발전은 누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백년간 투자가 이루어진 제외국의 유수 대학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지고도 그들에 뒤지지 않는 크고 작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학 연구 능력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뚜렷한 보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21세기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R&D에 대해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유치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집중 투자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에 경주할 것인 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공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최근 이공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 대적으로 정부와 많은 언론 등은 이공계에 대한 범위 확대 확대와 장학금 부여 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의 기득권층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이공계 인력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즉, 이공계 인력이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방안으로서의 대책은 많이 내 놓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필자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공계를 전공한 이상, 사회의 주류로 인정받기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이공계 대책을 내놓아도 지속적으로 최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이공계 유입을 이끌어 낼 수는 없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대와 의대에 병역혜택이 있어서 아니면 정예군을 많이 주어서 유능한 학생들이 징병을 물리는 것은 아깝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 정당한 사회, 경제적인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대중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은 이공계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공계를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능력과 노력을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안 해 준다면,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라도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공계 인력들이 바라는 것은 이공계에 대한 우대나 특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이공계가 이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공계 특혜, 유능한 많은 연구개발직 종사자들—가 사회에 기여한 바가 개량화가 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이공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할 정당한 사회, 경제적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힘든 가난과 빈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지금 평평거리면서 몸집은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사회적인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함께 누리면서 마치 자신들은 깨끗한 척 말이나 잘하는 '법조인'들도 아닙니다.

또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커리나 지어 자기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강화하는 '의사·약사'도 아니

趙禮來

(90년 工大卒)

특허청 사무관



고, 연구는 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에 얼굴이나 팔아 어떻게든 정치권에 진입하여 입신출세하고자 하는 '교수'들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부침과 비리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으며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언군 자처럼 훈수나 두는 '언론인'들이 아니며,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리인 것처럼 행동했던 '행정관료'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이익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작은 성취감에 만족해서 살았던 많은 유능했던 연구개발자들입니다. 그들이 반도체라도 개발해서 수출하고, 자동차라도 만들어서 팔고, 훌륭한 철강과 좋은 배를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 같은 산업연관 양성 등의 환상을 싣어주어서 유능한 인재들을 이공계로 유입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그러기에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너무나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공계 인력을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논리」와 이용하는 피상적인 사람발발 대책으로는 유능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은 바람 수 없을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병역 혜택」을 이공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이공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학에 다달 돈이 없어 「장학금 지급」에 자신의 미래를 팔아야 하는, 그리고 애초로 군대가 싫어서 이공계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공계로 유입시키는 것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이공계 문제의 해결책은 이공계의 사회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서 찾아야 하며, 정당한 보상은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자신에게 해택을 주었던 많은 사회계층들에게 대한 상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그들에게 연구의지를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끌어내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21년대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화제의 5분

영상물등급위 白祐榮위원

환갑 나이에 장편소설 「자향」 펴내 “재미와 문학성 함께 병행해야죠”



『장편서적 혹은 일회성이 강한 잡지를 즐겨보던 내가 이 책을 우연히 접하고 다섯 권을 단숨에 읽어 버렸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불가사의한 일이다.』 ‘요즘처럼 서민들의 모습을 모르고 미처 남쫓는 정치가들이 꼭 봐야 할 책이다.』 (인터넷 서점 YES24 독자서평 중에서)

요즘 전직 문화부 기자 출신인 白祐榮(67년 文理大學·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통급 분류위원)등인이 쓴 장편소설인 「자향(소남출판사·전5권)」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많은 독자들이 작품성, 대중성에 별 다섯 개를 주지 않아 주었고 조선, 중앙 등 주요 일간지들도 한 목소리로 ‘유익하고 재미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白동문의 첫 번째 작품인 「자향」은 그의 나이 60에 완성했다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신선하고 젊은 감각으로 엮어낸 장편소설이다. 조선 중종 기묘사화의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삼은 이 소설은 집안이 몰락해 노비가 될 운명에 처한 열 여섯 살 처녀 자향의 열혈간의 도망길과 궁중의 추호위왕 시건이 함께 얽힌 방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는 이 안에 무한코드를 적절히 가미하고 조

선 중기 사회의 사실적 묘사, 꽃·나무·풍수지리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며 다른 역사소설과는 차별화시켰다.

환갑의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한 까닭을 묻자 白동문은 학창시절 꿈속 이세겨우 아본 것이라고 답했다. 『고등학교 때 미대를 갈까도 생각했는데 자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포기하고 소설가가 되어왔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전교 1등 하는 친구보다 참했던 게 국어였어요. 그런데 대학졸업 후엔 작가의 길을 걷지 않고 신문기자를 하게 됐습니다. 문학 언저리만 뱅뎠다 신문사를 나온 후에야 겨우 소설을 쓰게 됐네요.』

기자로 활동했던 게 소설 쓰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는 도움을 준 것 같긴 하지만, 단문으로 쓰던 버릇이 걸림돌이 돼 지금까지 그 습관을 고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소설이란 때론 끈적끈적하며 중언부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뉘드리하는 것 같기도 해야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문체가 무미건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사 나온 지 5년 됐는데 이제 겨우 단문형식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白동문은 무급일간지 「메트로」에 칼럼도 쓰며 신문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 오다가 올해부터는 일과 소설 쓰는 일에 만 몰두하고 있다.

『주제나 문학성을 중시하는 엄숙한 소설과 재미를 쫓는 대중소설을 가르는 구분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 속에 자연스럽게 문학적인 요소들과 현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죠. 다음 소설은 현대 불이 불테데, 문정수법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구성뿐 아니라 문장 하나 하나에도 공들인 작품을 쓰려고 합니다. 동문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南)

Noblesse Oblige

북쪽으로 키자흐스탄, 동남쪽으로 타지키스탄,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접하고 있는 인구 5백만명의 자그마한 나라 키르기스스탄. 이렇듯 생소한 이곳에서 3년째 낙후된 의료환경·서비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며 의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

성균관대 의대 소아과 교수에서 STL(Scientific Technology and Linguistic Institute) NGO단체의 의료파트 담당자로 변신한 白南先(87년 醫大卒)등은 이 그 주인공.

『학창시절 기독교 서클에서 만난 부인(姜惠影·90년 醫大卒·前우탄소아과 원장)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매년 휴가 때마다 개



발도상국 지역을 돌며 의료활동을 나갔으며, 우연히 함께 진료활동을 펼친

동료로부터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백달러에 매우 낙후된 지역이지만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잘돼 있고, 문화가 우리의 흡사한데다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편이라 2001년 말 심사숙고 끝에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싣었죠.』

白동문이 하는 일은 舊소련의 남은 의료제도를 이 지역의 경제·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현지 사람들 스스로가 선진국의 도움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처음 이곳을 찾은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이곳 의료제도는 의사의 전문성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1차 진

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무려 다섯 명의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워낙 의료교육과 환경이 뒷받침이 안돼 있어 이곳 젊은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의사 한 명이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가정의 개념의 의사로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또 그는 현지 의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의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정말 자신처럼 사람 취급하는 마음을 갖도록 멘토(mentor) 역할을 하고 있

고 있으며, 교도소, 무의촌 농촌지역,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

든 발벗고 나서 는 열정을 보여 왔다.』

와 의사의 길에 섰는지에 대해 白동문은

『현재에도 자랑스럽고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고픈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이 구미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는 부모·형제·배우자도 같이 가질 수 없는 이주 의료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비자립인 생여정의 감동무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대답한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한다는 白동문은 끝으로 비록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의 정치·경제·교육·의료·문화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말을 잊지 않

는다.

(表)

白南先 前성균관대 소아과 교수 舊소련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 97년부터 부인과 함께 무료진료

건강을 지키는

뇌졸중 예방은 지금부터

삼십 년전 신경외과 병동으로 처음 실습을 갔을 때 병실마다 가득 찬 환자들의 모습은 큰 충격이었다. 머리는 깎이고 기관지는 절개된 상태로 뒹 하나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들... 그때까지 사람이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두 가지 상태중 하나인 줄만 알고 있었다가 그 이후 삶과 죽음의 경계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환자들 대부분은 뇌졸중과 외상환자들이었다. 뇌졸중은 우리 나라 사람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일 뿐 아니라 식물인간을 포함한 중추성 장애의 큰 원인 이므로, 한번 발병하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일순간에 인생은 180도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뇌졸중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 하는 뇌출혈과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혈관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좋지 못한 식생활 습관 즉 짜거나 고지방 음식을 즐겨 먹는 습성과 흡연,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고 이들 질환이 결국은 혈관에 변성을 가져와 뇌졸중을 일으키게 된다.

어려서 생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은 대개 평생을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의 예방은 어렸을 적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

黃 聖 男
(75년 醫大卒)
중앙대 교수



스, 불안, 우울, 분노 등이 지속되면 뇌 내에 붉은 등이 커지면서 모든 장기에 적색경보가 울리게 된다. 적색경보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심혈관 계통을 긴장시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답도 알려져 있다.

올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 스트레스에 대한 현명한 해소 등이며, 뇌 내에는 항상 푸른 등을 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위험질환이 있으면 좋은 치료제들이 많으니 치료하면 된다. 뇌졸중의 또 다른 주원인인 뇌동맥류는 요즈음 입원하지 않고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나 중년이 되면 한번쯤 해보는 것도 좋다.

뇌졸중이 발병하면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므로 발병하기 전에 발병 후 애쓰는 노력의 절반의 일만 투자하라는 것이다.

(원탁처 : 748-9872)

가족 건강법

「각탕」으로 혈액순환 장애 없애

요즘 반좌욕이 건강에 좋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팔자의 안사람도 반좌욕을 매일 하는 족에 속한다. 그러나 팔자의 경우 반좌욕 대신 각탕을 하고 있다. 반좌욕은 옷을 전부 벗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각탕은 옷을 벗을 필요도 없고 집에 욕장이 없어도 플라스틱 통 2개와 간단한 의자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탕은 뜨거운 물을 통에 채우고 이미에 담이 몇할 때까지 발을 담그기만 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자연 건강 요법이다. 방법은 뜨거운 물 (42~43℃)통에 두 발을 넣어 20분 정도 침강이까지 담갔다가 그 후 찬물(상온) 통에서 30초~1분 정도 담가주면 끝이다. 하루종일 활동하다보면 심장에서 가장 먼 발과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등 혈액순환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발과 다리에 뜨거운 물로 자극해 주는 각탕을 하면 전신의 혈행은 물론 기의 순환이 왕성해져 돈 안돌고 쉽게 혈액순환이 될 수 있다. 노폐물 배출과 더욱 강력한 열행 효과를 원한다면 소금 한줌 또는 겨자가루 한 수저를 물에 타서 하면 땀이 더욱 후끈하게 맺힌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각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증은 참으로 많다. 감기, 신경통, 관절염, 급제, 생리통, 통풍 등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두통, 목의 통증, 치질까지도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각탕은 혈액 순환을 돕는 여러 가지 자연건강법 중에서 으뜸을 차지 할 정도로 효과가 크다. 팔자는 아무리 늦어도 밤 12시 이전에는 반드시 각탕을 한다. 각탕을 실천한 이후로 몸이 화상 가뿐하고 기분이 좋다.

하지만 각탕이 아무리 뛰어난 효능이 있다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 혈압에 이상이 있는 사람 등은 각탕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각탕을 처음 시작해 하루만 해도 그 날은 몸과 마음이 가뿐하며 잠도 잘 온다. 계속하면 지금의 성인병이 반으로 줄고 의사의 수를 반으로 줄여도 될 정도로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각탕 외에 1주일에 하루정도 단식하는 것도

李 景 宰

(63년 文理大卒)
동진분석기술연구소
대표



추천해 주고 싶은 건강법이다. 그저 굶는 것이 아니라 「장곡단식」을 하는 것이다. 표고버섯 20g과 다시마 20g을 함께 달여 설탕과 간장으로 양념한 최상의 우동국물을 큰 컵으로 하루 2~3회 마시며 단식하면 배도 고프지 않고 장도 썩 청소되므로 일이나 기분 좋겠는가. 단식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 몸은 물론 정신을 새롭게 해주는 「깁 대치 않은 수술」이다.

또 한가지 간단한 운동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하는 「발목운동」이다. 발바닥에 둥근 나무를 놓고 두 발목 뒤쪽 부분을 둥근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 좌우 발목을 위아래로 교대로 10회 정도 툭툭 쳐주는 매우 간단한 동작이다. 체력 없는 것은 거의 없는 반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新刊

■ 예수의 생애
—崔明官 著

1863년 6월 출간된 엄청난 판매량과 함께 격렬한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섰던 책이다.

국내에서는 1967년 처음으로 출간됐는데, 이 책은 역사적인 숭상과 철학과 崔明官(48년 文理大卒) 명예교수가 번역판본으로 삼은 13권의 머리말과 참고문헌 등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예수의 전기 중에서 가장 널리 오래도록 읽히고 있는 책으로 예수가 살던 고장, 예수가 걸어간 곳, 쉬던 물가, 그리고 그가 살던 고장의 지리와 주변의 역사 등을 소개하며 현대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학적·지리학적 연구를 함께 담았다. (훈복문화사刊·값12,000원)

■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金哲洙 著

도교 발매 金哲洙(36년 法大卒·명치대 석좌 교수·분보 노실위원) 명예교수가 독일분단 60년, 독일통일 15년의 계기를 맞아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책을 펴냈다.

독일의 분단과정과 분단된 독일—동독과 서독의 정치와 헌법을 비교해 놓았으며, 10월 혁명, 통일 성취과정의 헌법개정과 조약체결을 고찰하고 독일통일 후의 정치와 헌법을 담았다. 이 책은 법학자와 정치의교과도, 독일학도는 물론 조국 통일을 갈구하는 사람에까지 도움이 될리라 본다. (박영사刊·값33,000원)

■ 이래야 부자된다
—崔相浩 著

국민정신 연구소 崔相浩(69년 農大卒)소장이 펴낸 부자 시리즈 제1권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강사와 청중간에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이뤄지고 일반 생활습관, 자녀교육, 마음가짐 등 여러 가지 초점으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선·후진국 연구와 다양한 강연을 통해 확인된 「부자가 될 수 있는 정신적 기본」에다 한국민의 일반적 자세를 대입시켜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개선의 결의를 다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국민정신연구소刊·값11,000원)

■ 환경박막기술
—李義辛 著

한국생산기술연구원 李義辛(70년 工大卒·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연구회 대표)교수는 이 책을 통해 표면공학 이론 및 관련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친화적 기술로서 표면기술 부분인 진공관식법으로 박막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것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 및 결과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능성 피막재료에 관해 기술했고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 및 소자를 중심으로 한 응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북스힐刊·값15,000원)

■ 1.5미터의 비밀
—黃大容 著

원자력의 학원 원자력병원 의과 병원인 黃大容(84년 醫大卒)동문이 1.5미터의 대장에서 발생한

생하는 암에 관한 일반교양서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수많은 대장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경험을 살려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경우부터 대장암 진단을 위한 관련 검사들, 치료방법 등을 쉬운 용어로 풀어 썼으며, 각종 내시경, X-ray, CT, MRI, PET, Bone scan 사진 자료들을 함께 실어 대장암 환자들이 자신의 몸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암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병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진찰 결과와 각 병원에 치료법, 예후 등에 관한 설명도 담겨 있다. (이론아침刊·값12,000원)

■ 화물과정

—朴哲憲 외 共著

공대 출신인 宋錫顯(82년 전자공학)·朴哲憲(84년 전자공학)·南秉憲(94년 전자공학)동문이 화물과 화물과정의 기초 내용과 함께 전자·전기 공학에 필요한 고급 내용을 담았다.

추억의 창

힘들게 천막촌 임시교사에 입학
자장면 나눠 먹자면 친구 그리워

郭厚燮(56년 師大卒)前서울시 부시장

경남고 2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했고 나라의 운명이 최후의 미지노선인 낙동강 전선에 목이 매달려 있을 때 정부마저 최후의 보루인 부산에 피난을 왔으며,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이 대부분 부산에 옮겨와 있었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공산군을 막기 위해 고등학생마저 교도를 쓴 채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선에 나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필자는 6·25전쟁 후 곧 내 고향 거창에 피난을 가 있다가 다음해 봄 복교령이 내려서야 부산에 왔기 때문에 참전 기회는 갖지 못했다. 소용돌이치는 전쟁의 와중에 어 렷사리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때 내 형편은 엉투대 학도학은 엉투대



1953년 겨울, 읍지6가 학교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우로부터 두 번째 필자).

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교원을 거둬들이다가 여러 전지들의 조언을 받은 끝에 고교 영어담당 유영준 선생님의 강력한 권고와 격려에 용기를 얻어 비장한 결의로 대학진학을 결심했다. 목표 학교는 서울대로 정했으나 내가 원하는 전공분야와는 관계없이 우선 학비가 제일 적게 들고 졸업 후 취직하기 쉬운 요건을 고르다 보니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선택하게 됐다.

8대 1에 가까운 경쟁을 뚫고 들어간 학교는 부산 구덕수원지 근처에 있는 천막촌 임시 교사였다. 비가 오면 책상 위에 빗물이 떨어지고 바람에 나무꾼이 천막소리에 강 의 초조도 볼기처럼 때가 많은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수업 분위기도 또한 느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주경야독 식으로 학업을 꾸려 나가는 처지였기에 출발부터 학생 본연의 태세로 공부들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르바이트로 수업 경장이 잦아 보니 친구들에게 머리돌식과 강의 노트를 부탁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생존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보지라 많은 친지, 친구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으며 힘겨운 학생생활을 꾸려 나갔다.

때마침 장군의 인권선봉자전으로 전세가 호전

되면서 정부가 한 도하게 되고 우리 학교도 용무동에 임시교사를 마련 해 전수수업을 계속했다. 학생들은 모이면 전쟁이야기와 사는 걱정, 특히 걱정 이야기가 대부분이아 늘 불안과 가난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루두들간의 우정은 두터워 서

로 도와주는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지냈다. 그러나 필자 같은 사람은 배우는 것보다 주로 받는 편이어서 어쩌다가 학교에 나가 자장면 한 접시 한 그릇 나눠 먹자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고, 가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오는 날이면 그 날은 행복했다. 메마른 삶을 영위하고 보니 언제나 가정의 정이 그리워 정신적 부모로서 교분을 나누며 지내는 분도 있었고 특히 도교 학장이었던 高光燮 선생(문교부 장관 역임 후 미국 이민) 내외분의 사랑과 격려는 유약한 내 마음을 다스 리는데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어렸든 지난날을 회상하면 필자의 대학시절은 알뜰한 터널을 통과하는 생존 게임이었고 격동기를 살아온 그 시절의 「고난사」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한국과학기술원에 서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낱말을 한글로 쉽게 풀어 써서 개념을 설명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보기를 많이 넣고 상세한 설명을 했다. (생능출판사刊·값28,000원)

■ NEXT

—(주)원강NEXT

미래를 준비하는 열민 知性誌「NEXT」가 지난해 11월 출간됐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겠다는 의지로 첫발을 내딛었



다. (주)원강NEXT刊·값8,000원)

公演

■ 崔哲淵비올라독주회

—3월 18일 예술의 전당

비올리스트 崔哲淵(92년 高대卒·구리시 교향악단 수석)동문 이 3월 18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



회를 갖는다. 미국 미주리주립대 음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崔동문은 지난해 음악재단에서 선정한 신인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로키델라, 클라크, 브람스, 로코르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등정

수상

▲**朴昌龍**(50년) 文理大卒·금융그룹 명예회장·본회 부회장) = 최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목암 문물학 분화재단이 수여하는 2004년 문물학 문화상 수상자에 선정됨.

▲**樓維亨**(55년) 美大卒·모교 디자인학부 명예교수) = 지난 2월 18일 가톨릭출판사 내 마리아홀에서 열린 제9회 가톨릭 미술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음.

▲**朴宰憲**(58년) 商大卒·대성전기 회장) = 지난 2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으로부터 경영인대상(경영기부부문)을 받음.

▲**姜信杓**(59년) 文理大卒·인제대 교수) = 지난 2월 1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1회 해운대호텔 학술상을 받음.

▲**鄭元鎮**(63년) 師大卒·前한국교원대 총장) = 지난 2월 24일 청초 근정훈장을 받음.

▲**劉泰學**(77년) 人文大卒·한신대 교수) = 지난 3월 1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 부경호텔에서 3·1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5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받음.

▲**崔在天**(77년) 自然大卒·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 지난 3월 7일 여의도 공민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여성대학에서 한국여성대학원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음.

▲**朴贊法**(26기) AMP·아시아나항공 사장) = 지난 2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라유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로봉자부문 대상을 받음.

▲**金起植**(33기) AMP·애경유리사장) = 지난 2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음.

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으로부터 경영인대상(대기업부문)을 받음.

▲**李相永**(40기) ACAD·인한캐피탈 대표) = 최근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발상으로 지식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로 해럴드경 재단에서 2003년을 빛낸 신지식, 신한국인상을 받음.

이동·선임

▲**崔鍾起**(54년) 法大卒·모교 행정학과 명예교수·한국국제관계연구소 이사장) = 최근 국립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집현당에서 위촉됨.

▲**閔西天**(56년) 文理大卒·서경대 총장) = 지난 2월 1일 8년간의 총장직을 마치고 서경대 명예총장에 취임함.

▲**徐廷旭**(57년) 工大卒·국제대학교 학기술협력재단 이사장) = 지난 2월 24일 한국부엌협회 전차무역주최 위원장에 선임됨.

▲**崔泰祥**(57년) 師大卒·前경북고 교장) = 최근 열린 한국수학학회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白完基**(59년) 文理大卒·고려대 명예교수) = 지난 2월 6일 한국외대(학교별) 동원목회회 이사장에 선출됨.

▲**李仁浩**(55년) 文理大卒·前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지난 2월 5일 명지대 인문대학 석좌교수에 위촉됨.

▲**金聖浩**(60년) 文理大卒·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 지난 2월 24일 연세대 생명과학기술연구원 목골교수로 차임함.

▲**洪淳瑛**(61년) 法大卒·前외교통상부 장관) = 지난 2월 5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相範**(62년) 工大卒·국영연지언어회 회장) = 최근 한국과학기술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기공학회 제40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에 선출됨.

▲**宋基弘**(64년) 法大卒·충진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됨.

▲**趙容武**(64년) 法大卒·광림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대전지법원장에 임명됨.

▲**朴啓哲**(65년) 醫大卒·고려대 교수) = 지난 2월 20일 서울보훈병원장에 선임됨.

▲**梁在信**(66년) 工大卒·대우종합기계 사장) = 지난 2월 12일 한국전기기계공업협회 제5대 회장에 선임됨.

▲**尹鍾龍**(66년) 工大卒·삼성전자 부회장) = 지난 2월 11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차기회장에 선출됨.

▲**趙由典**(66년) 文理大卒·前국립문화재단연구소장) = 최근 동아대 초빙교수에 위촉돼 3월부터 고교와 박물관과 문화재 보존·관리분야를 강의함.

▲**池鎭吉**(66년) 文理大卒·前국립중앙박물관장) = 최근 동아대 초빙교수에 위촉돼 3월부터 박물관학과 전시분야를 강의함.

▲**李祥義**(66년) 農大卒·국회 의원) = 지난 2월 11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추대됨.

▲**宋榮培**(6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 = 최근 한국동원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됨.

▲**朴培勳**(67년) 師大卒·한국교원대 교수) = 지난 2월 24일 한국교원대 총장에 내정됨.

▲**柳東俊**(67년) 依大院卒·경희대 명예교수) = 지난 2월 20일 열린 한국성인영어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成基善**(67년) 依大院卒·한신대 총장) = 지난 2월 20일 임기 4년째 한신대 제6대 총장에 재선임됨.

▲**韓緯路**(68년) 農大卒·중소기업육성부 위원장) = 지난 2월 24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내정됨.

▲**李起盛**(68년) 文理大卒·계원조정위원장) = 지난 2월 4일 한국관문조소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새 경제부총리에 李憲宰동문장·차관급에 동문 6명

지난 2월 10일 박근혜 제정경제부 장관에 李憲宰(66년 法大卒)한국의사회총장을 임명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 6명이 임명됐다.

이날 노동부 장관에 金大煥(75년 商大卒)인하대 경찰대학장, 국무조정실장에 韓憲珠(71년 商大卒)사립연구원장이 기용됐다.

또 비상기획위원장에 金熙相(73년 文理大卒)前대통령

국방부 조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金萬福(71년 法大卒)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이 임명됐다.

한편 지난 2월 17일 환경부장관에 郭汝鎭(80년 遷大院卒)차관이 승진 임명됐다.



國무조정실장, 비상기획위원장,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金仁洙**(68년) 法大卒·광주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서울형정법원장에 임명됨.

▲**崔興起**(68년) 音大卒·前서울시합창단 상임지휘자) = 지난 2월 2일 서울시합창단 단장에 임명됨.

▲**李敦求**(69년) 農大卒·모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 지난 2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한국임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에 선임됨.

▲**郭東鎭**(69년) 法大卒·서울북부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의정부지법원장에 임명됨.

▲**金文煥**(69년) 法大卒·서울중앙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됨.

▲**金文煥**(69년) 法大卒·국립대 산위재산관대학원장) = 지난 2월 19일 국립대 제8대 총장에 선임됨.

▲**金在晉**(69년) 法大卒·청주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부산고법원장에 임명됨.

▲**李鴻藻**(69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 = 지난 2월 4일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됨.

▲**鄭泰玟**(69년) 韓大卒·삼성생명보험(주)소장) = 지난 2월 21일 열린 한국생명보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康文鍾**(70년) 法大卒·국립고법 부장판사) = 지난 2월 4일 부산지법원장에 임명됨.

▲**金學元**(70년) 法大卒·국회의원) = 지난 2월 19일 자연원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됨.

▲**卞東杰**(70년) 法大卒·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지난 2월 4일 용산지법원장에 임명됨.

▲**安聖龍**(70년) 法大卒·울산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임명됨.

▲**禹義亨**(70년) 法大卒·외정부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청주지법원장에 임명됨.

▲**李昌求**(70년) 法大卒·서울남부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장원지법원장에 임명됨.

▲**鄭鎭瑛**(70년) 法大卒·대전지법원장) = 지난 2월 4일 대전지법원장에 임명됨.

▲**李根雄**(70년) 韓大院卒·대전고법원장) = 지난 2월 4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됨.



▲申恒國(71년) 工大卒·한국과 학기(출판)교수)=지난 2월 23일 한국문화재단 재단 협회 제5대 회장에 선출됨.



▲韓南碩(71년) 法大卒·서울서 부지법원장=지난 2월 4일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됨.



▲金淸植(71년) 法大卒·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지난 2월 4일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됨.



▲李大榮(71년) 法大卒·前판계청 차장=지난 2월 20일 법무법인 두중 고문에 위촉됨.



▲李琰愛(71년) 法大卒·서울고법 특별7부 부장판사=지난 2월 4일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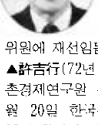
▲張志石(71년) 法大卒·경원대 교수)=지난 2월 23일 경원대 행정대학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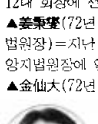
▲趙聖遠(71년) 商大卒·보교 경연회와 교수)=지난 2월 9일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됨.



▲郭堯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등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최근 사단법인 대한인문인회 복지기금 관리위원회에 자선임명.



▲許吉行(72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지난 2월 20일 한국식품유통학회 제12대 회장에 선출됨.



▲鄭聖興(72년) 法大卒·부산지법원장=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위촉됨.



▲金仙大(72년) 經大院卒·한국장관예술평의회 수석감사)=지난 1월 30일 한국연론재단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제43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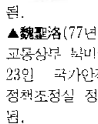
▲安慶元(73년) 農大卒·前농림부 차관(주)=지난 2월 24일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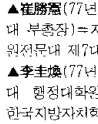
▲黃健豪(74년) 商人卒·前메리츠증권 사장)=지난 2월 13일 한국증권협회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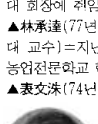
▲李在道(76년) 經營大卒·기획예산처 기획정책국장(주)=지난 2월 12일 대통령 저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에 내정됨.



▲郭堯浩(77년) 新會大卒·前외교부 차관 북미국장(주)=지난 2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조정관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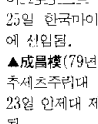
▲鄭聖遠(77년) 醫大卒·가천의대 부총장(주)=지난 2월 23일 경원대 제7대 학장에 취임함.



▲李圭煥(77년) 經大院卒·중앙대 행정대학원장(주)=최근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취임함.



▲林承遠(77년) 經大院卒·강릉대 교수(주)=지난 2월 24일 한국농업진흥청 학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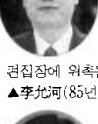
▲表文珠(78년) 農大·SK텔레콤 사장(주)=지난 2월 5일 한국RFID협회 초대 회장에 선임됨.



▲鄭聖遠(78년) 師大卒·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주)=지난 2월 25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에 선임됨.



▲成昌模(79년) 工大卒·美메사추세츠주립대 교수(주)=지난 2월 23일 인제대 제3대 총장에 선임됨.



▲趙堯烈(79년) 法大卒·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주)=최근 콘두라스와 도미니카간의 남북분쟁 중재를 위한 세계무역기구 패널위원회에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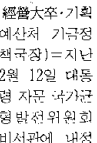
▲崔廣秀(80년) 工大卒·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주)=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학술지 '저널 오브 에어로 스페이스 사이언스' 편집장에 위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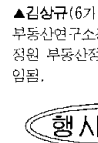
▲李允河(85년) 藥大卒·CJ(주) 제약개발팀장(주)=최근 CJ(주) 제약개발팀장 사무이사에 선임됨.



▲辛聖澤(38기) AMP·동원산업 사장(주)=지난 2월 24일 동원산업 부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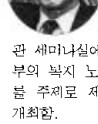
▲金상규(6기) APC·한국강원도부동산연구소(주)=최근 한국강원도 부동산정보센터 소장에 선임됨.



▲邊衛尹(51년) 商大卒·모교 제학부 명예교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주)=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혁주의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11차 심포지엄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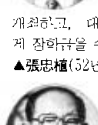
▲鄭聖遠(52년) 丁大卒·신학원 화재단 이사장(주)=지난 2월 28일 동창회관 5층 관아홀에서 제1차 장미꽃을 수여함.



▲張忠植(52년) 師大人·단국대 이시정·국제로터리 3650지구 총재(주)=지난 2월 23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로터리 창립 99주년 기념 합동주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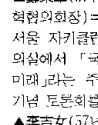
▲鄭聖遠(57년) 師大卒·의식개혁위원회(주)=지난 2월 21일 서울 자지클럽(마주협회) 대회의실에서 「국제정책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 6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대학 단·회장·분회 부회장(주)=지난 2월 6일 인천 시청을 방문한 인천 유니시티 드 프로축구단 2차 시민주 2만 주(1억원)의 청약서를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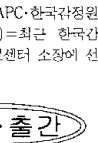
▲金英勳(59년) 法大卒·송신대 법대교수·대한환경문제연구소(주)=지난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내 스칸디나비아 빌딩 회의실에서 국립환경연구원 최훈근 박사를 초청, 「지평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를 주제로 환경문제세미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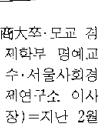
▲金成勳(62년) 農大卒·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주)=지난 2월 19일 경원대 회관에서 「기후변화 정부 출연 1년 국정운영평가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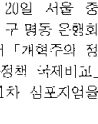
▲金鳳蘭(58년) 法大·국가인권위원회(주)=지난 2월 13~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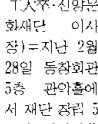
내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8차 연례회의에 서울대 법대 안京煥(70년 法大卒)학장 등과 함께 참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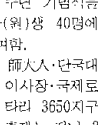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명예교수·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주)=지난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청각 일속조형원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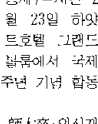
▲柳莊熙(63년) 商大卒·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한국경제학회 회장(주)=지난 2월 12~13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0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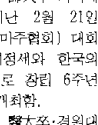
▲趙健鎭(66년) 法大卒·한국부여학회 상근부회장(주)=지난 2월 20일 한국산림기술자협회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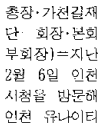
▲華美子(66년) 商人卒·경남대 교수·소프라노(주)=지난 3월 9일 (마산MBC홀), 13일 (호암아트홀) 클라리넷소프라노 劉大(84년 音大卒·충남대 교수)·피아니스트 李素眞(91년 音大卒·경남대 교수)등문의 반주로 독창회를 열고 소프라노 도나우디의 「오 나의 사랑하는 맘... 프랑시스 뽈랑의 「사랑의 길, 김동원의 「그리운 마음, 장일남의 「비목」 등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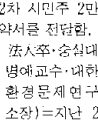
▲曹相鎭(67년) 行大院卒·前체육부 장관·장조창학회 이사장(주)=지난 2월 21일 CSA중학원 구로캠퍼스에서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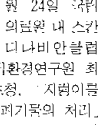
노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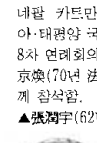
▲鄭海濤(68년) 法大卒·진주산업대 총장(주)=지난 2월 7일 경남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경원대학교 2년제 인문대학으로 열린 「대학인 연애와 나라가 산다-CEO총장의 현장교과」를 주관하며 개최함.



▲金昌洙(68년) 藥大卒·뉴욕공인회계사(주)=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농로농을 위해 지주와 운자, 부지, 모, 상속계획, 리스크 관리 등을 담은 세 번째 저서 「미국생활과 재정계획」을 출간함.



▲金重賢(69년) 法大卒·한국형정연구원(주)=지난 2월 24일 조서호빌에서 무르친존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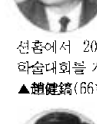
한문글대사를 초청, 동아시아행정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함.



▲朴憲烈(71년) 二大卒·중앙대 기술과학연구소(주)=지난 2월 1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ABB플라즈마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한·중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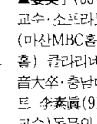
▲鄭浩永(71년) 師大卒·국회도서관(주)=지난 2월 20일 중앙대에서 「입법정거를 위한 법규정책적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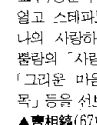
▲金鎮喜(75년) 音大卒·추계예대 강사(주)=지난 2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보카르트, L라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金鳳蘭(75년) 新大院卒·한국광고협회 상근부회장·중앙대 겸임교수(주)=지난 2월 14일 중국 광고협회를 방문, 時學士사무총장과 미국광고주협회 코버트 라이오스 회장 만나 광고산업발전과 정보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함.



▲梁承泰(85년) 社會大卒·관악민주포럼 회장(주)=지난 2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鄭健鎭(74년 文壇大卒)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초청, 「한국 사회의 개혁과 40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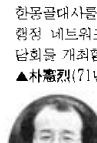
▲金容達(00년) 行大院卒·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주)=지난 2월 13일 전경련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대형재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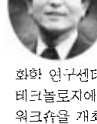
▲金泰完(44기) ACAD·민족통일분교중앙협의회 회장·민주평등천안시협의회 회장(주)=지난 2월 20일 전안시사적동 240-1번지 린니미빌딩 2층에 노숙자와 국민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개소함.



(정리=安興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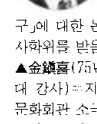
한문글대사를 초청, 동아시아행정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함.



▲朴憲烈(71년) 二大卒·중앙대 기술과학연구소(주)=지난 2월 1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ABB플라즈마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한·중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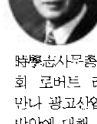
▲鄭浩永(71년) 師大卒·국회도서관(주)=지난 2월 20일 중앙대에서 「입법정거를 위한 법규정책적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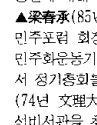
▲金鎮喜(75년) 音大卒·추계예대 강사(주)=지난 2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보카르트, L라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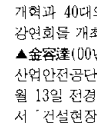
▲金鳳蘭(75년) 新大院卒·한국광고협회 상근부회장·중앙대 겸임교수(주)=지난 2월 14일 중국 광고협회를 방문, 時學士사무총장과 미국광고주협회 코버트 라이오스 회장 만나 광고산업발전과 정보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함.



▲梁承泰(85년) 社會大卒·관악민주포럼 회장(주)=지난 2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鄭健鎭(74년 文壇大卒)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초청, 「한국 사회의 개혁과 40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金容達(00년) 行大院卒·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주)=지난 2월 13일 전경련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대형재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함.



▲金泰完(44기) ACAD·민족통일분교중앙협의회 회장·민주평등천안시협의회 회장(주)=지난 2월 20일 전안시사적동 240-1번지 린니미빌딩 2층에 노숙자와 국민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개소함.



(정리=安興發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아홀에서 회식을 발원 증진을 소개한다.

- 김태현(98년 工大卒)·같은 회 세=4월 10일 14시.
- 라준하(04년 醫醫大卒)·이운신 씨=4월 11일 14시.

▲임인택 ▲장명봉 ▲조창하 ▲조주순 ▲자수명 ▲전정배 ▲최병선 ▲하일부 ▲한기선 ▲황정호 ▲허규철 ▲허익렬 ▲홍순우 ▲황병호

◇사법대학

• 박기호 • 정지호 • 최이선
▲주영석

◇상과대학

▲강신돈 ▲김상남 ▲김자희 ▲박영구 ▲박종현 ▲수희관 ▲안재규 ▲염영철 ▲이병식 ▲이영기 ▲지지부 ▲홍성인 ▲황병태

◇수의과대학

▲김성경 ▲최준표

◇약학대학

▲송인자 ▲염기정 ▲장학순

◇음악대학

▲이정희

◇의과대학

▲강세윤 ▲김광희 ▲김일석 ▲송정삼 ▲이규환 ▲정동철 ▲황규열

◇치과대학

▲김기호 ▲김영철 ▲심백현 ▲안정모 ▲정태원

◇대학원

▲김홍렬 ▲정인태

◇점영대학원

▲원영종

◇행정대학원

▲정성진

일 반

◇인문대학

▲강창석 ▲김동국 ▲김병욱 ▲김사인 ▲김상호 ▲김승환 ▲김원규 ▲김재열 ▲김주철 ▲김하태 ▲박재우 ▲박철준 ▲배희철 ▲손준연 ▲신인수 ▲유국환 ▲왕수철 ▲이동환 ▲이상규 ▲이우철 ▲이일환 ▲이준배 ▲이준우 ▲이국사 ▲임미희 ▲임승중 ▲정병재 ▲정영철 ▲조대영 ▲조효진 ▲지두환 ▲최지웅 ▲허영재 ▲홍성범

◇사회과학대학

▲강병철 ▲고홍석 ▲권세원 ▲김광수 ▲김동욱 ▲김병호 ▲김성권 ▲김성열 ▲김연광 ▲김원근 ▲김용수 ▲김재호 ▲김진수 ▲김정수 ▲김대문 ▲김태희 ▲김현정 ▲김영규 ▲남승수 ▲노정현 ▲도경수 ▲박상훈 ▲박시영 ▲박성민 ▲박승지 ▲박인식 ▲박종원 ▲박지정 ▲박인기 ▲사배수 ▲설경훈 ▲유달배 ▲윤동영 ▲윤소영 ▲윤승보 ▲이석재 ▲이석호 ▲이성호 ▲이유식 ▲이정훈 ▲이재룡 ▲이재훈 ▲이정섭 ▲전예진 ▲정연규 ▲정인익 ▲정혁준 ▲조재희 ▲조태용 ▲조하수 ▲전형준 ▲차희원 ▲홍성철 ▲홍승원 ▲최수하 ▲정원현

◇자연과학대학

▲고형석 ▲권순재 ▲김대진 ▲김민지 ▲김수진 ▲김영수 ▲김옥매 ▲김용환 ▲김종준 ▲김요진 ▲류은수 ▲문우일 ▲비명준 ▲배용수 ▲신영봉 ▲안수환 ▲유한성 ▲이은영 ▲이원애 ▲이종익 ▲장성기 ▲전준환 ▲정희경 ▲표현봉 ▲한동욱 ▲홍지영

◇간호대학

▲김영순 ▲김경윤 ▲김현숙 ▲김해정 ▲노혜숙 ▲신숙희 ▲우경선 ▲유미선 ▲이은숙

▲이현숙 ▲이종자 ▲정은자 ▲정혜선 ▲최명지

◇점영대학

▲박창현 ▲권문옥 ▲권혁무 ▲김재환 ▲김정호 ▲김하영 ▲김홍준 ▲남연우 ▲류건상 ▲박주선 ▲박지영 ▲박재현 ▲박태성 ▲박영봉 ▲사진우 ▲서태환 ▲신재훈 ▲안상준 ▲안성철 ▲오성호 ▲이내수 ▲이상진 ▲이승훈 ▲이정우 ▲이광우 ▲이환철 ▲이한복 ▲장 옥 ▲정승관 ▲조수범 ▲최주현 ▲한영현

◇공과대학

▲강병수 ▲강상규 ▲김석호 ▲강수준 ▲강영수 ▲김정환 ▲고유문 ▲곽용수 ▲곽태현 ▲구복국 ▲구자관 ▲구지일 ▲권 면 ▲권혁민 ▲김경수 ▲김건남 ▲김경석 ▲김경수 ▲김계현 ▲김광수 ▲김근택 ▲김기모 ▲김기봉 ▲김태원 ▲김두권 ▲김발우 ▲김병기 ▲김병우 ▲김병철 ▲김선복 ▲김성태 ▲김영근 ▲김영록 ▲김영일 ▲김민식 ▲김용환 ▲김봉인 ▲김우재 ▲김용성 ▲김이상 ▲김인성 ▲김재인 ▲김재중 ▲김재철 ▲김정인 ▲김정철 ▲김종현 ▲김종민 ▲김종만 ▲김종학 ▲김주영 ▲김준식 ▲김우호 ▲김종환 ▲김찬식 ▲김정경 ▲김준경 ▲김종오 ▲김하석 ▲김현태 ▲김형남 ▲김희태 ▲김호근 ▲김호재 ▲김홍수 ▲김홍준 ▲김희정 ▲나영재 ▲나종재 ▲나호성 ▲남성욱 ▲남동우 ▲노승규 ▲노일현 ▲유기석 ▲부영석 ▲민병기 ▲민영기 ▲민정근 ▲박경민 ▲박경섭 ▲박영현 ▲박경원 ▲박기서 ▲박동호 ▲박성일 ▲박성호 ▲박용운 ▲박일종 ▲박재선 ▲박정석 ▲박종관 ▲박종현

▲박종태 ▲박진우 ▲박진철 ▲박지환 ▲박대근 ▲박철준 ▲박용환 ▲배지희 ▲배영준 ▲백승환 ▲백영규 ▲백희기 ▲변갑성 ▲변종문 ▲변준남 ▲서강덕 ▲서남규 ▲서성기 ▲서윤철 ▲서의호 ▲서성복 ▲서우철 ▲서정복 ▲수필기 ▲손인철 ▲송배원 ▲송원정 ▲송재철 ▲송주영 ▲송태성 ▲신경호 ▲신복용 ▲신상용 ▲신성수 ▲신준정 ▲신동민 ▲신현준 ▲안병재 ▲안복선 ▲안상희 ▲안지영 ▲양기정 ▲양서희 ▲양수호 ▲양정국 ▲어 준 ▲임지호 ▲연관희 ▲오세창 ▲오대규 ▲옥기열 ▲유경호 ▲우재훈 ▲유기춘 ▲유영철 ▲유관현 ▲유재현 ▲윤덕규 ▲윤주익 ▲윤진영 ▲윤창민 ▲윤형식 ▲이정환 ▲이내배 ▲이기영 ▲이내호 ▲이동원 ▲이봉철 ▲이병기 ▲이병록 ▲이병하 ▲이봉우 ▲이부원 ▲이상현 ▲이상국 ▲이상수 ▲이상준 ▲이성교 ▲이상근 ▲이성우 ▲이성우 ▲이성준 ▲이시우 ▲이양석 ▲이연주 ▲이영준 ▲이영철 ▲이영호 ▲이완국 ▲이원교 ▲이원복 ▲이원환 ▲이인선 ▲이성호 ▲이재훈 ▲이정우 ▲이중성 ▲이종훈 ▲이종모 ▲이준현 ▲이종호 ▲이진근 ▲이진희 ▲이종현 ▲이태수 ▲이현호 ▲이영우 ▲이종재 ▲이희승 ▲임우호 ▲임성순 ▲임정재 ▲임정주 ▲임준환 ▲인원태 ▲전병환 ▲전우태 ▲전진환 ▲전진진 ▲전정성 ▲전희성 ▲정광철 ▲정규환 ▲정문철 ▲정상훈 ▲정용호 ▲정유나 ▲정종상 ▲정지성 ▲정종기 ▲정태규 ▲정배철 ▲정해인 ▲정재준 ▲정현일 ▲정오영 ▲정용환 ▲재광 ▲조남일 ▲조남철 ▲조동현 ▲조복태 ▲조시흥 ▲조성룡 ▲조영선 ▲조용철 ▲조승수

▲조재범 ▲조정현 ▲조진호 ▲주성재 ▲재민규 ▲최동재 ▲최경명 ▲최무력 ▲최문식 ▲최미규 ▲최병국 ▲최상현 ▲최상호 ▲최인부 ▲최원희 ▲최영준 ▲최원철 ▲최용환 ▲최정남 ▲최정위 ▲최태선 ▲최택석 ▲최희철 ▲표태원 ▲한국소 ▲안동철 ▲안두영 ▲한병익 ▲안승우 ▲한진우 ▲합영기 ▲현범석 ▲홍영희 ▲홍민택 ▲황연영 ▲황태현 ▲황익남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정수 ▲고관기 ▲권성기 ▲최승택 ▲심 훈 ▲김관진 ▲김대환 ▲김병철 ▲김주현 ▲김민수 ▲김영문 ▲김영호 ▲김원진 ▲김은수 ▲기기기 ▲김정수 ▲김진조 ▲김정철 ▲김태희 ▲김재우 ▲류병우 ▲민정희 ▲박근조 ▲박정대 ▲박준식 ▲박정용 ▲박호근 ▲방수자 ▲성나곤 ▲송기철 ▲신용덕 ▲신병선 ▲신용철 ▲안수경 ▲임수학 ▲오기봉 ▲오승환 ▲오재섭 ▲오원준 ▲유명국 ▲윤성준 ▲유수길 ▲이군지 ▲이근하 ▲이무종 ▲이병철 ▲이비용 ▲이용환 ▲이서진 ▲이정남 ▲이정호 ▲이진우 ▲이창규 ▲이춘영 ▲이현수 ▲이희의 ▲임기호 ▲임우성 ▲장석환 ▲전계광 ▲전우범 ▲정도섭 ▲정봉진 ▲정지욱 ▲정태영 ▲조성호 ▲조재철 ▲주재훈 ▲최성근 ▲최은용 ▲최현숙 ▲배용준 ▲한상룡 ▲한성봉 ▲한민우 ▲허정수 ▲홍성규 ▲홍인선 ▲홍갑수 ▲황두문

◇문리과학

▲강승환 ▲곽복록 ▲권병영 ▲김규환 ▲김도현 ▲김복록 ▲김도욱 ▲김문관 ▲김문성 ▲김병진 ▲김복문 ▲김지선 ▲김성희 ▲김영숙 ▲김영철

동창회보 일고

뭘 좀 갖춰 놓고 빌려줍시다

몇 주전 갑자기 낯선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하고 한 낯 전화를 받느라 왼쪽 귀가 납작해지는 산재(?)를 입었으니 산재보험에 보상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때 듣고 다닌 지 벌써 몇 년이나 낯선 목소리의 전화가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만 뭔가 감이 났었다.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목소리는 친절했으니 그 뒤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거룩한 '원고 청탁'이었다.

재미도 없는 글 한 페이지 쓰면서 무슨 사실이 그리 기나고 할 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짜지 같은 것과는 달리 그래도 '대서울대 동창'을 대상으로 하는 동창회보라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12년 전에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아셨다(물) 전에 뜻, 나설 데를 나서야지, 아무나 글 쓰나? 하고 하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매일 동창회보를 받긴 하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가슴이 뜨뜻한 일이었다. 주제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으나 어리리 마구 둘러다가 생각해 낸 것이 지난 가을에 동창회관을 빌려서 사용했을 때의 불편함이다.

직업이 연구원이요, 매일 하는 일이 연구이다 보니 작년의 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으나 장소

가 마땅치 않았다. 그동안 '서울대 교수만을 위한 시설인데 동창생까지 나서서 사용하라 하면 곤란하다'는 식의 온갖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여러 편리한 점이 있어 좋은 사용했던 호암 컨벤션센터는 이미 예약 완료인 상태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연히 동창회관을 접하게

왜 서울대 동창생은

동창회관에서 결혼식과

회갑연 같은 모임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에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았다. 곧바로 전화하니 마침 우리가 계획한 날에 관악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열은 예약부터 하고 계약금도 지불했다.

행사 준비에 정신이 없어 현장에는 미리 가 보지도 못하고 감정에 날 담일에야 조금 서둘러 도착했다. 현장 파악을 하지 않은 내 잘못이 그 무엇보다도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당할 줄은 몰랐다. 관악홀은 오로지 전후 예식용 위해

金 秒 逸

(78년 家政大卒)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마련된 장소였다. 이런 셋업(set-up)이었다면 세미나나 심포지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미나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기에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 큰 착오였다.

물론 그 "최소한"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은 것도 잘못이었고, 하필 우리 연구원들은 모두 제구도 작고 기온도 세지 않은 여자들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 뒀 앞의 주례 선생님을 위한 포니움(podium)을 밑에 옮기기 시작했고, 포터를 스크린을 들고 뛰고, 각종 의자와 예식을 도구들을 주위 모아 빌드 프로젝터를 설치하기에 바빴다.

관악홀을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

셨지만 주로 말아 오신 양이란군 신부 화장과 복제, 드레스 챙기기 등이었으니 우리의 상황이 어땠을 지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초청장에는 공청회 장소를 서울대학교 동창회관이라고 자랑스럽게 써져 보였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동창이셨으니 대부분이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오셨을 텐데 과연 그 기대치의 어느 정도에나 부응했는지, 아니면 그냥 실망 그 자체이었든 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단지, 좀더 확실하게 관악홀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란다는 생각뿐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동창회관을 떠나며 한 마디 했다. '우리 뭘 좀 갖추어 놓고 빌려줍시다!'

오늘 동창회관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보았다. 이제 아용안내에서 세미나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의 물(?)을 보시고 내용을 고치신 것인지... 괜히 쓸쓸한 생각이 든다. 왜 서울대 동창생은 동창회관에서 결혼식과 회갑연 같은 모임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가? 땀만 예약 완료라는 호암 컨벤션센터의 수요를 동창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애간의 사설 투자를 하여 장화사업을 위한 수업을 제고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날이만 날마다 결혼식과 회갑연이 있는 것은 아닐진대 이런 방향으로의 개선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

제 잘못은 짓혀두고 남 탓만 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난 아직도 대학생인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 '서울대 동창회관'을 많이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창회관에서 심포지엄 한번 정말 우아하게 열여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동창회보를 "두 번 죽이는 일"

처음에는 쓴 소리를 할 요량으로 펜을 들었다. 한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동창회보에 대해 쓴 소리를 할 만한 면도 서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네. 동창회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흥겹고 아름다운 동문들의 소식을 알음으로 변한 것이 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니 내 마음을 두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졸업하고도 몇 년이 지난, 십 수 년 전 어느 날 동창회보를 처음 받아보았을 때가 생각난다. '아, 나도 이제 동창회의 일원이구나!' 마치 나의 소속을 확인시켜 주는 통지서라도 받은 양 가벼운 흥분마저 느꼈고, 연애편지라도 읽는 것처럼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도 기억난다.

그러나 그 때 이후 동창회보를 매번 받아 보면서 주와 길게 읽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 워낙 까마득히 높은 선배 동문들이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서 느껴지는 거리가간 나를 동창회보와 멀어지게 했다는 공허한 변명을 해 본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실로 오랜만에 동창회보를 처음 받았을 때만큼이나 애정

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32쪽의 지면마다 다량하고 알찬 내용들로 꾸미기 위해 노력하고 애 쓴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런 동창회보를 별로 볼 게 없다는 '편견'으로 대중 전성으로 눈길 한번 주고는 날 짜 지난 신문터미와 함께 쌓아둔다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동창회보를 두

동창회보는 재미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연애편지 읽듯 주의 깊게

읽어 볼 것을 권유

번 죽이는 일'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동창회보는 재미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라.

지나호 동창회보를 대략 살펴보면, 테리나우 골장, 동문칼럼, 관악촌주, 동문기지의 취재수필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총동창회 동정을 비롯해서 각 지부 동

柳 容 先

(86년 人文大卒)

무연설생명

사회의 지침 부지침장



창회, 단과대학별 동창회, 모교 소식 등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알려주는가 하면, 화제의 동문을 소개하고, Noblese Oblige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동문을 알려져서 귀감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아름·팔에 사위까지 동문으로 책 짠 서울대 가족 소개는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고, 나이 많은 선배 동문이 말하는 '나의 건강법'과 '건강을 지킴사'도 눈길을 끈다.

어느 것 하나 그날 지나치기 아까운 내용들이다. 심지어 합격자 명단처럼 디

자인 감각 없이 이름만 나열해 놓은 동창회비 납부명단도 정겹게 보이고, 동문 동정만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실린 후배 동문들의 결혼식 안내마저도 앙증맞기만 하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1946년 개교 이래 단과대학별로 활동해 오던 동창회가 1968년에 연립하여 총동창회를 구성했고, 1975년 총합회 개회 때부터 연립 퍼스 이전 이후 1976년부터 명심삼환 총동창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76년)에 창간된 동창회보는 지난 28년간 총동창회의 발전에 베풀 수 없는 '추억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동창회보는 일상의 바쁨에 파묻혀 지내는 나를 잠시 수십 년 전 추억 속의 그 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내라는 타임머신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요란스럽거나 지니지게 진지하고 거창할 필요도 없다. 오래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서 새삼스런 매력을 느끼진 못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소중하듯이 변함 없이 그냥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추추는 동창회보'가 어떤데 알아서 동문들의 향기 가득한 소식을 잘 전해주려는 글이 한가지만 더 바라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이나 저명인사, 지도층에 있는 동문을 위주에서 탈피하여 산업현장과 연계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동문들의 글 폭넓은 소개를 통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전근간 있게 다가가는 동창회보가 됐으면 한다.